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C
뱅크오브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779호

Monday, October 16, 2023 A



광화문 월대 100년 만에 복원 - 왕의 길, 다시 열렸다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옛 모습을 찾았다. 15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광장에서 '월대 및 현관 복원' 행사를 열었다. 월대는 1923년 일제의 전차선로 설치로, 현관은 6·25전쟁 때 화재로 훼손됐다. 앞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복원됐던 현관은 자로 고종 과정을 거쳐 이번에 검은색 바탕 금빛 글씨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지상군 수만명 투입”

미국, 중·사우디에 “확전 막아달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미 배치한 ‘수퍼 핵항모’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에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배치하는 초유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지상전에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섬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해 최상의 조건에서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15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까지 대피하라고 통보했다. IDF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앞서 가자시티와 가자지구 북부 주민에게 안전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촉구했다”며 “이스라엘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피 경로에서 어떠한 작전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방탄조끼를 입고 가자지구 외곽 군부대를 방문해 “다음 단계가 다가

오고 있다”며 군을 독려했다. 이와 관련, 당초 주말인 14~15일께 지상군 투입이 예상됐으나 기상 악화로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지원 작전에 애로가 발생하면서 미뤄졌다고 NYT는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력은 17년 전 레바논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하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근거지를 공격했다. 34일간의 전쟁에서 레바논인 1000여명, 이스라엘인 150여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국경 지역에서 벌인 헤즈볼라와의 전쟁과 달리 시가전 형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도심과 지하 터널에서 하마스와 교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좁은 골목에 폭발물을 숨겨놓고, 미로 같은 지하 땅굴 안에 각종 지뢰나 함정을 설치해 놓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통합정밀직격탄(JDAM)을 터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상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병커버스터’로 불리는 JDAM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시설물을 관통해 폭발하는 만큼 땅굴 파괴에 효과적이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김민정 기자
» 2면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과반 미국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

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 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

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김형재 기자
» 3면 ‘국적포기’로 이어집니다



제20회 코러스축제 열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워싱턴한인축제 코러스페스티벌이 13일 저녁부터 15일까지 애난데일 K마켓 주차장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개막식에서는 JUB한국문화센터의 웅장한 북의 합주에 이어 중앙한국학교 어린이들의 한미 양 국가 제창, 와싱턴중앙장교회 류용렬 목사의 개회 기도로 가을밤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김윤미 기자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여기 플랜지모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커지는 이란 개입 우려...미국도 확전 가능성 거론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전쟁'이 이란의 개입 등에 의해 확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 방영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이 이번 사태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선 우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지상전을 위해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가 남부 도시 아슈켈론 근처 들판에 집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란의 '대리자'인 헤즈볼라를 우려한다"며 "물론 이란이 어떤 형태의 직접 개입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외교적 접촉에 대한 질문에 "이란과 내밀하게 소통할 수 있

는 수단들이 있다"며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직접 분명히 전하기 위해 그 수단들을 지난 며칠간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이란 가운데,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크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속한다면 이 지역(중동) 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아무

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또 다른 핵추진 항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축출한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는 잔인하고 사악한 테러 조직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위협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도전"이라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평화와 존엄, 안전 속에서 살게 할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 1면 '이스라엘'에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인 야콥 카츠는 "이스라엘군은 가능한 한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대신 폭발물을 떨어뜨려 터널을 먼저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초읽기'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4일 토드 벤네슬란드 유엔 중동특사를 통해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다. 당장 지상전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헤즈볼라가 마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나선 경우 이란이 시리아 내 무장단체나 헤즈볼라의 참전을 지원하는 등 직·간

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은 확전 방지에 애쓰고 있다. 중동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장관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민간인 보호와 중동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해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4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같은 날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엔 또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이스라엘을 재방문한다. 지난 12일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한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정상 등과 만났고, 마흐무드 압 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과도 회동했다. 그야말로 동분서주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김민정 기자

공군 수송기 급파, 한·일 220명 텔아비브 탈출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 국민도 수송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163명(장기 체류자 81명, 단기 여행객 82명)과 일본인, 싱가포르인 등 220명을 태운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군 수송기는 13일 정오쯤 한국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텔아비브 벵구리온 공항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다시 한국으로 출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가자지구에 대한 군

사작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을 비롯해 국내 항공사들의 취항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 수송기를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철수 작전에 투입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300여 명의 인원과 화물 47t가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데다 항속거리가 1만5000km나 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내 철수 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수송한 인원 중에는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포함됐

다. 정부 당국자는 "가용 좌석이 230여 석 정도 되는데,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탑승하고도 자리가 남아 인도적 차원에서 제3국 인접국 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미카와 요코 외상은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항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이스라엘에는 한국인 장기 체류자 440여 명과 단기 체류자 10여 명이 남아 있다. 정부

는 이들이 출국을 희망하면 육로 또는 제3국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을 빠져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로 급파한 공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1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시민들이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워싱턴 날씨 (°F)

17일(화)	63~44	☀️	20일(금)	68~51	☁️
18일(수)	66~47	☀️	21일(토)	60~46	☁️
19일(목)	70~53	☀️	22일(일)	59~41	☁️

10월 16일(월) 60~4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유닛 마감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3,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일!
---	--	---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무료 상담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한미동맹, 숭고한 모든 희생 기억 할 것”

민주당,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방문

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일인 지난 15일 대가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를 방문한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응렬 목사는 “올해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1973년 창립 이후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많은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리 코넬리 연방하원의원(민주, VA 11지구)은 “연방의회 내에서 코리아 코커스 의장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코넬리 의원은 “나의 동료였던 찰스 랭글(charles rangel)전 연방하원의원이 18세에 징집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미국 동맹의 주요 일원이자 전세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류응렬 목사는 “최근 한국의 전라도를 방문해 1892년 파송된 윌리엄 전킨(William Junkin) 선교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면서 “일제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 시절 많은 선교사들과 군인들의 희생에 다시



류응렬 목사가 제리 코넬리 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민주당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전킨 선교사는 버지니아 출신으로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일곱 명의 선교사 중 한명으로, 1892년 한국으로 파송돼 5개의 교회와 6개 학교, 병원을 설립했다. 그는 또한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하며 길선주 목사 등 한국 최초 목회자들을 양성했다. 전킨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1908년 43세를 일기로 한국에서 숨을 거뒀다. 류 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후손을 찾으려 노력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코넬리 의원을 비롯해 주상원의원 데이빗 마스덴(제37지구), 제니퍼 보이스코(제33지구), 주하원의원 비비안 와츠(제39지구), 댄 헬머(제10지구), 케리 텔러니 (제67지구), 캐시

트랜(제42지구), 수하스 서브라매니암(87지구), 미셸 로페즈 말도나도(제50지구)를 비롯, 캐시 스미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설리 디스트릭), 케렌 키스-마마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광역), 스텔라 파커스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설리 디스트릭),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감사장,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후보(광역), 시마 디시트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후보(설리 디스트릭), 크리스 팔콘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서기 후보, 트라비스 넬브하드 주하원의원 후보(제22지구), 케넌 쉬르비산 주하원의원 후보(제26지구), 전경숙 아태계연합 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윤미 기자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15일 열려

워싱턴 DC에서 15일 열린, 주미 공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해 북미 무기거래 등 외교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외통위의 미주지역 국감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향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 의미가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이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확진되면 푸틴과 시진핑이 미소를 띠고, 결과적으로 그 불똥이 동북아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기회를 틈타 유엔에서 아랍 국가들을 모아 공세를 벌일 수 있다”며 “북한은 냉전이나 중동전쟁 시기마다 틈새를 파고들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미 무기 거래와 관련해선 “미국 언론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흘렸는데, 미국 정부가 사전에 막아 보려고 고도의 첩보 자료를 언론을 통해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한미간에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심사유예를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한

유예 조치한 것의 의미를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데, 장비 조금 허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산업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에만 가면 기가 죽어 저 자세로 간다는 말을 듣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에 지나치게 몰입해 미국과 일본 비위를 거스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까 걱정돼 드린 말”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정기활동 보고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재부, 산자부의 영사활동 보고서 내용이 어이가 없었다”며 “보고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복발’(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기) 수준이었고, 접촉 인사 명단까지 똑같았다. 미국과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통상면담 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 설치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관위 위원회가 13일 설치됐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재외선거관 강호성)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3일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류엽 변호사, 부위원장에 이지호 참사관 겸 영사가 선



재외선관위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출되었으며 강호성 재외선거관을 포함, 이강석(더불어민주당), 이문형(국민의 힘) 추천위원 등 5명을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운영 등 투표관리, 재외선거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단속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한편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과는 신고·신청해야 하며 내달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 기간중 전자우편(ovusa@mofa.go.kr)이나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순회영사, 순회접수 일정에 맞춰 서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 1면 ‘국적포기’에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야한다”고 전제하되,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차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고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www.carefreelandusa.com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사라져가는 DVD

넷플릭스 이어 베스트바이도 판매 중단

미국에서 DVD를 살 수 있는 곳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

14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유통체인 '베스트 바이'는 내년 초까지 DVD와 블루레이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베스트 바이는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은 수십 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고객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더 많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장에서 DVD 진열대를 축소해 왔다.

베스트 바이의 매출에서 DVD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재 이 회사 온라인몰의 영화·TV쇼 부문에는 2만4천여개의 DVD와 약 1만4천개의 블루레이가 등록돼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빨간 봉투에 넣어 보내던 DVD 우편 배송 판매를



넷플릭스의 DVD 배송 봉투

지난달 완전히 종료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베스트바이까지 DVD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에서 DVD를 취급하는 매장은 월마트와 아마존, 타깃이 남게 됐다.

DVD는 한때 영화 팬들의 주요 소장품으로 사랑받았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CNN은 "아직 살 수 있을 때 DVD를 구입하라"고 독자들에게 권했다.

한남체인 노조설립안 압도적 부결

한남체인 LA점에 노동조합 설립이 무산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LA지부는 13일 그동안 보류했던 한남체인 LA점의 노조가입 결정 투표함을 열고 개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28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NLRB는 이날 규정에 따라 양측이 서로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표(challenged ballots)는 개표하지 않아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개표 전 확인한 이의표는 총 22개다.

NLRB의 카일라 블라도 대변인은 "이의표에 대한 개표는 다음 주까지 노사 양측이 개표에 대한 의견을 절충해야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양측에서 결과를 두고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개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의표 검토 과정에서 절반가량이 노조 측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돼, 남은 절반을 찬성표로 계산한다고 해도 반대표 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NLRB 규정상 노조가 설립되며

면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8월 3일 실시된 노조가입 결정투표에 참여한 직원은 65명으로, 찬성표가 33표가 넘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한남체인 LA의 무노조 경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표장에는 한남체인을 대변하고 있는 '반스앤햄버그 로팜'에서 박수영 변호사 등 담당 변호인 2명이 참석했으며, 노조 측에서는 한남체인 노조 설립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소매식당노조(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CRRWU) 호세 허난데즈 대표와 알렉산드라 서 재무 담당 이사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대표, KIWA 직원 1명 등 3명이 개표 과정을 지켜봤다. NLRB는 개표 과정을 온라인으로도 공개, 양측 관계자들이 접속해 지켜봤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만족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아직 쟁쟁지표 개표 여부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직원들의 마음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정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CRRWU의 호세 허난데즈 대표는 "회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조 설립을 막고 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체인은 이번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2일 판결한 NLRB의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남체인 LA는 지난 8월 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위협 등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NLRB는 지난 2일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NLRB는 한남체인의 이의제기 후 투표함을 압류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표를 보류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판결문을 읽어 보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사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부정행위는 1번만 했어도 위법은 위법이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CRRWU의 위법 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최혜진, LPGA 투어 뷰익 상하이 공동 3위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뷰익 상하이(총상금 210만 달러)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15일 중국 상하이 치중 가든 골프클럽(파72·6천69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는 맹타를 휘둘렀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최혜진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24위에 머물러 우승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최혜진은 이날 9언더파를 몰아친 마들렌 샥스트룀(스웨덴)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며 순위를 리더보드 상단까지 끌어올렸다.

최혜진이 경기를 끝냈을 때는 공동 1위 성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우승 또는 연장전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나 에인절 인과 릴리아 부(이상 미국)가 14언더파를 기록하는 바람에 자신의 LPGA 투어 첫 승은 다



최혜진 에인절 인

음을 기억하게 됐다.

이날 연장전을 벌인 인과 부는 올해 4월 메이저 대회인 세브른 챔피언십에서도 연장전에서 맞대결, 당시에는 부가 '메이저 쿼'이 됐고 이번 대회에서는 인이 웃었다. 중국계인 인은 이번 대회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31만5천 달러다.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노린 교포 선수 대니얼 강(미국)은 9언더파 279타, 공동 17위로 대회를 마쳤다.

LPGA 투어는 장소를 한국으로 옮겨 19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서원힐스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으로 일정을 이어간다.

뉴저지주 열린 '한복의 날' ... 앤디 김 "전통찾기 노력 고무적"

뉴저지주(州)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포트리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 기념식이 세 번째로 열렸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해 선포한 주다.

이날 현지에는 오전부터 큰 비가 내렸지만, 한인 사회 관계자와 현지인 수백 명이 기념식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지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투 축사를 보내거나 직접 참석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앤디 김 하원의원이 모두 축사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복의 날을 뉴저지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청소년단체 제머차세대협의회(AAYC)를 거론하면서 "한인사회에 전통문화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식에 참석한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

라고 규정하는 그는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첫 번째 아시아계 연방의원이자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하면서도 뛰어난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기념식에 대해 한국의 관심도 커졌다. 이날 기념 행사로 열린 한복 패션쇼에는 지난해 초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조선 시대 배경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남녀 주인공이 입었던 실제 한복이 공수됐다. 또한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념 공연을 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뉴저지에서 한복의 날 기념일 제정을 이끈 AAYC의 브라이언 전 대표는 "뉴저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코리언 한복'(Korean Hanbok)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운동을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지난해 대비 약 7% 상승

아마존 10월 프라임데이 판매량이 작년보다 상승했다. 시장 조사기관 누머레이터에 따르면, 10월 10~11일 이들 동안

총 13만7111개의 물건이 팔린 '프라임빅딜데이'의 판매액이 작년 동기 '프라임얼리엑세스세일' 대비 약 7% 상승했다.

프라임빅딜데이 주문당 평균 지출액도 작년의 50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53.47달러였다. 다만 올해 7월 프라임데이의 58.67달러보다는 줄었다. 평균 가구당 지출액(124.09달러) 역시 작년의

117달러보다는 약 6% 더 많았다. 프라임빅딜데이에 팔린 상품 중 60%는 20달러 미만이었으며 4%만이 100달러 이상이었다. 최고 인기 상품은 프리미어 단백질셰이크, 아마존 보조 배

터리, 아마존 파이어 TV 등이다. 또 소비자 55%는 2개 이상 별도 주문을 했으며 1회 주문 금액은 10~20달러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 3명 중 1명은 세일 상품을 구매했다. 정하은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북버지니아 주택판매 18.2%감소

판매가격 계속 상승 모기지 금리 고공행진

높은 모기지 금리 등의 여파로 워싱턴 지역 주택 판매 실적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NVAR)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18.2% 감소했다. 8월의 전년동월 대비 12.4% 감소보다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서 8월 대비 9월 판매량은 23.1% 감소한 1180채로, 최근 5년간 9월 평균 판매량 1685채에도 크게 미달했다.

NVAR은 7%에서 7.5%에 이르는 높은 모기지 금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제이미 드시몬 NVAR 이사는 “모기지 금리 시장이 모든 바이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특히 첫주택 구입자



의 시련이 크다”면서 “금리가 높으면 바이어 뿐만 아니라 셀러들도 기존주택 판매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 소유주의 절반 이상은 재융자 등을 통해 3% 미만의 이자율을 지니고 있다. 9월 재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1% 줄어든 1.22개월 판매분량에

불과하다. 최근 5년새 9월 평균 재고량은 1.3개월 어지었다.

업계에서는 그나마 8월 재고량 1.08개월 판매분량보다 많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리스팅 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17일로 전년동월의 25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9월에도 리스팅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중간주택판매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5% 상승한 65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새 9월 중간주택판매가격은 59만4028달러였다. 페어팩스 카운티 중간판매가격은 65만달러, 알링턴 카운티는 70만달러였다.

라이언 맥라린 NVAR 회장은 “모기지 금리 고공행진과 리스팅 주택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셀러들이 복수의 오퍼를 받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의치 않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판매량을 가능할 수 있는 잠정판매량도 1220채로 전년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NVAR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폴스처치, 페어팩스 시티, 헨턴, 비엔나, 클립튼 타운 지역을 통계를 포함시킨다.

김옥채 기자

메트로버스 24시간 운행 서비스

연말부터 13개 노선 대상

워싱턴메트로공사(WMATA)가 빠르면 올연말부터 특정 버스노선을 24시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 정부는 WMATA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13개 버스노선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0분 간격으로 버스를 배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메트로 버스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2-30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며 첫 배차시간은 오전 4시부터 7시 사이다.

24시간 배차 서비스가 시행되면 오전 2시부터 4-7시 사이 2-5시간의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WMATA는 오는 12월 17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4시간 서비스 운행 노선은 32, 33, 52, 70, 80, 92, A6/A8, B2, H4, S2, W4, X2 등이다.

항암제 공급 부족 사태 지속

워싱턴 지역 병원 심각

항암 치료제 부족사태가 이어지면서 워싱턴 지역 종합병원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등 워싱턴 지역 병원들은 병원 차원에서 테스트 크로스업을 꾸려 항암제 확보에 나서고 등 자구책을 쓰고 있다. 아만다 페이더 존스홉킨스 대학 중앙학 교수는 “14개에 이르는 광범위 항암제 공급이 매우 적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데킨 아이노바 헬스 시스템스카 암센터 소장은 “3월에 시작한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가 최근 전국 29개 암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2%가 카보플라틴 항암제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시스플라틴 항암제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도 59%였다. 데킨 소장은 유방암과 후두암, 대장암, 결장암 치료에 필요한 플루오로우라실 항암제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연방식품의약품(FDA)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쉽지 않다. 제약

업계는 팬데믹 이후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원인은, 14종의 항암제 대부분이 특허권 보장기간이 끝난 제너릭 약품이었는데 있다. 이들 제너릭 항암제는 많은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공급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 합병이 가속화되면서 아목시실린처럼 널리 쓰이는 제너릭 항암제조차 제조시설이 통폐합되고 구조조정 당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항암제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약 원료 분야는 아직까지 공급난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병원 방문을 꺼렸던 이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질병을 방치해 암환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항암제 부족사태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선글라스 절도범 사살한 경찰 기소돼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훔쳐 달아나던 흑인 남성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기소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대배심은 웨슬리 쉬플레트 전 경찰관이 지난 2월 버지니아 타이슨스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훔쳐 달아나던 티모시 존슨(사건 당시 37세)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및 총기 부주의 발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쉬플레트는 2월 22일 노드스토프 백화점에서 고급 선글라스를 훔친 범인을 추격하던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자체 조사를 거쳐 쉬플레트를 해고했으나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7월 대배심 소집을 요구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

쉬플레트와 함께 총격을 가한 제임스 새들러 경찰관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돼 소수계 커뮤니티의 공분을 샀었다. 특히 흑인 커

뮤니티는 비무장 상태에서 도주하던 범인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카운티 경찰국은 내부감사를 거쳐 쉬플레트를 해고하는 대신 입건을 하지 않아 더 큰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존슨의 어머니 멜리사 존슨은 “경찰관을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다소 안도감을 느낄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대배심 재판 전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경찰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 첫 심리는 오는 20일(금) 예정돼 있다.

김옥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마이클 장**

맞춤형 의류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방용품 · 상업용품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내장금(미락조 풀)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경기침체 가능성 50% 밀으로 하락”

경기 전망을 낙관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난 것이다.

WSJ이 지난 6~11일 업계 및 학계 경제학자 65명을 상대로 벌인 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향후 1년 새 미국 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48%로, 3개월 전 조사 때의 54%에서 6%포인트 떨어졌다.

경기침체 전망 확률이 50% 밀로 떨어진 것은 지난 해 중순 조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진정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게 주된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고, 성장률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도



뉴욕의 증권거래소 건물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몬트리올은행(BMO)의 더그 포터 이코노미스트는 설문 답변에서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지속해서 줄어든다고 있다”며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약 60%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다수 경제학자가 올해 예정된 11월 및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

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본 것이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은 내년부터 성장세 둔화와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내년 2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나온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 확산이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려 경제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금리 상승도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도이체방크의 브렛 라이언 및 매슈 루제티 이코노미스트는 설문 답변에서 “지난 몇 달 새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저축고갈, 간간해진 대출 태도, 소득 증가율 둔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은 내년도 경기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으로 그동안 ‘킵메이커’ 역할을 해온 뉴질랜드제일당도 퇴락했다. 뉴질랜드제일당은 2020년 총선에서 5% 득표를 못 해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민당은) 경우에 따라서 뉴질랜드제일당의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릭슨 대표는 “오늘 밤 수치(득표율)로써 국민당은 차기 정부를 이끌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재건하고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생계비를 낮추고 법과 질서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대표 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릭슨 대표는 3년 전 정계에 입문했다.

연합뉴스

“가자지구 주민 인도적 지원 협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격화 속에 하마스가 장악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자 미국이 관련 대응에 외교력을 본격 투입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전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도달하고, 충돌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에서 실종된 미국인들의 가족에게 “우리는 그들(실종 미국인)을 떠나지



지낸 데이비드 새터필드 전 대사를 중동 인도주의 문제 담당 특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팔레스타인인, 특히 가자지구 주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해 중동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소개했다.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15일 레바논,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우크라이나 파일럿, 애리조나서 F-16 훈련 시작”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이 곧 미국 내에서 F-16 훈련받게 된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익스프레스가 15일 보도했다.

복수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내주 애리조나주(州) 투손에 있는 모리스 항공 주방위군 기지에서 F-16 비행 훈련을 시작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장이 발발한 뒤 첫 미국내 훈련이 된다.

이들 조종사는 지난달 미국에 도착,

텍사스주 래클랜드 기지에서 영어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 실제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미 공군 제 162비행단과 함께 훈련하게 되며 실제 전투기 비행에 앞서 시뮬레이터 조종 등을 거치게 되나 전장 투입을 위해 훈련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즈 라일리 공군 대변인은 “시험에 따라 다음 과정 및 F-16 훈련 시기가 결정된다”며 “훈련 장소 선택을 놓고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F-16 전투기

항공사 CEO 출신 릭슨, 뉴질랜드 총리 예약

(에어뉴질랜드)

중도우파 성향의 뉴질랜드 제1 야당 국민당이 14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다만 과반 득표에는 못 미쳐 군소정당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반투표 개표 결과 국민당은 38.99%를 얻어 집권 노동당(26.85%)을 제치고 승리했다. 이어 녹색당이 10.78%, 액트(ACT)당 9%, 뉴질랜드제일당이 6.46%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토퍼 릭슨 국민당 대표는 노동당 7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됐고, 2017년 저신다 아던 전 총리를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노동당은 집권당 자리를 내주게 됐다. 노동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토퍼 릭슨 국민당 대표가 총선 승리 후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 릭슨 총리는 이날 “수치(득표율)를 보면 노동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릭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당은 과반 득표에는 성공하지 못해 액트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릭슨 대표는 “액트당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으며 두 당

10불짜리 시계 차며 80억불 기부 찰스 피니 별세, NYT 등 연일 추모

전 재산 8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한 미국 억만장자 찰스 프란시스 피니(사진)가 세상을 떠난 지 수일이 지나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BBC 등 외신은 연일 그의 업적과 자선 정신을 기리는 추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척 피니’라는 애칭으로 불린 그는 지난 9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세계적인 면세점업체 DFS 공동 창업자



그는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의 방 두 칸짜리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냈다고 한다. 피니는 2020년까지 자선재단 “에틀렌

틱 필렌스로드’를 통해 대학과 병원, 미술관 등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돈을 좇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리는 것이 싫어 내린 조치였다. NYT는 “피니가 8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생전에 전부 기부한 것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지극히 희귀한 경우”라고 평했다.

피니의 검소한 생활은 잘 알려졌다. 그가 창업한 면세점 DFS는 공항 등에

주는 장학금을 받아 코넬대에 입학했다. 소르본대 강좌 수강을 위해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현지에서 주둔한 미 해군에 면세 주류와 향수 등을 팔면서 면세 업계에 뛰어들었다. 1950년대 미국인의 유럽 관광과 일본인의 하와이 관광이 증가하면서 사업도 크게 번창했다.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부를 끌어모았다.

1982년 자선재단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나의 엄청난 롤모델이자 살아있는 동안 베푸는 최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수민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리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로에서 3분, 유니온스테이트 워튼 센터(Union-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엔리클(H-Ham)과 첼트리 북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4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4년에는 메디케어 플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Montgomery, Howard, Prince George County 등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Northern Virginia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800-232-5014

교회
시니어 센터나
소규모 모임 등
상담예약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3년 10월 15일~12월 7일

<p>애난데일</p>  <p>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p>	<p>센터빌</p>  <p>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p>	<p>엘리콧시티</p>  <p>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p>
---	--	---

* 메디케어 / 건강보험 사무직원 구합니다.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973-5933	Elizabeth Kim 703-642-7578	박종희 703-642-0305	Michelle Kim 703-337-0910

25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	----------------------------	---------------------------------	--

접종하면 걸려도 덜 아프고 합병증 낮춘다

50세 이후 필요한 백신 8가지

시니어들은 대부분 매년 10월 말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체질과 상황,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백신을 찾아봤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백신(가명·57)씨는 최근 후배로부터 대상 포진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후배가 이르기까지 “50세가 넘으면 누구나 맞는 백신을 왜 맞지 않느냐. 대상 포진은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조언을 받아들여 주치의와 상의해 백신을 맞았다. 그는 노화가 이미 시작된 50세를 기점으로 어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면서 “지난 5월에만도 승인된 새로운 RSV 백신을 예로 들었고, 다른 하나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대상 포진 백신인 싱그릭스(Shingrix), 몇몇 폐렴구균 백신도 시중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 시니어는 물론, 모든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과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나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추천 백신 중에 홍역과 수두 백신은 없다. 195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홍역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에서는 면역력이 없는 성인은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최소 1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홍역이 너무 널리 퍼져 성인으로서의 면역력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 독감 백신에 심각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계란 알러지가 있거나,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거나, 열이 높을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1.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빈도: 1년에 한 번이다. 바이러스가 매년 변하기 때문이다. 그 계절에 가장 흔한 변종이 무엇인지 예측한 다음 그에 따라 백신을 재구성한다. 독감 시즌은 일반적으로 10월에 시작하여 3월에



최근 50세가 넘는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백신이 많이 나왔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필요하면 맞아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끝난다. 예방 접종 후 독감 항체가 체내에 생성되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CDC에서는 10월 말까지 접종 받기를 권장한다.

-필요한 것: 65세 이상 시니어는 고용량 주사를 맞아야 한다. 플루존 고용량4가(Fluzone High-Dose Quadrivalent)는 표준 용량 불활성화 독감백신에 비해 항원을 4배 더 많이 함유한 주사형 백신이다.

풀러드 4가(Fluad Quadrivalent)는 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생성하는 첨가제인 MF59 보조제로 만든 보조 독감 백신이다. 플루블록 4가(Flublok Quadrivalent)는 계란에서 배양한 바이러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제조 과정에서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 재조합 백신이다.

-필요한 이유: 매년 독감으로 인해 수십만 건의 입원과 수만 명의 사망이 발생하며, 시니어는 심각한 경우 더 위험하다. 독감 입원의 50~70%는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사망자의 70~85%를 차지한다.

2. 코로나19 백신

-대상: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50세 이상에게 권장된다.

-빈도: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독감 백신

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접종이 매년 접종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의 조언은 백신에 대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은 최근 승인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클리닉과 약국에서 맞을 수 있다.

-필요한 것: 모더나 또는 화이자의 최신 코로나19 백신.

-필요한 이유: 코로나19는 110만 명의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5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3. RSV 백신

-대상: 60세 이상의 시니어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로부터 보호하는 백신으로 필요하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빈도: 지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RSV 백신은 올해 새로운 백신이므로 권장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필요한 것: 시니어를 위한 두 가지 백신 즉, Arexvy(제조사 GlaxoSmithKline)와 Abrisvo(제조사 Pfizer)가 승인됐다.

-필요한 이유: RSV는 종종 어린이와 관련이 있지만 시니어도 위험할 수 있다. 매년 65세 이상 성인 중 6만~16만 명이 입원하고 6000~1만 명이 사망한다. 임상 시험에서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것

으로 밝혀졌다.

4. 폐렴구균 백신

-대상: 65세 이상의 건강한 시니어 또는 흡연,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 백혈병, 림프종, 알코올 중독과 같은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19~64세 성인이다.

-빈도: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은 PCV15 또는 PCV20을 선택해야 한다. PCV15를 사용하는 경우 1년 후에 PPSV23을 접종해야 한다. 면역 저하자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이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인해 미국에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으며 시니어는 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5. Tdap 백신(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및/또는 Td 추가접종(파상풍, 디프테리아)

-대상: Tdap 백신은 2005년에 나왔으며,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예방 기능과 함께 백일해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이 있다. 맞은 기억이 없다면 필요하다.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Td 부스터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빈도: 성인은 10년마다 또는 심각

한 상처나 화상을 입은 경우 5년 후에 Tdap 또는 Td의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이유: 미국에서 백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이라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백신 접종 후 첫 해에 Tdap은 접종자중 70%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6. 대상포진 백신

-대상: CDC는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싱그릭스(Shingrix)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이전의 백신으로 효과가 훨씬 낮았던 조스타박스(Zostavax)를 접종했거나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빈도: 싱그릭스는 2~6개월 간격으로 2회 복용량으로 제공된다.

-필요한 이유: 3명 중 1명은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에 대상포진에 걸리게 된다. 위험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85세가 되면 성인의 절반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발병하게 된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동일한 바이러스인 수두 대상포진에 의해 발생한다. 수두를 앓은 사람이 회복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체내에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 약물, 질병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나타난다. 감염되면 붉은 발진과 고통스러운 물집을 유발한다. 환자의 15%는 극심한 신경통을 겪는다. 대상포진후 신경통인데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7. A형 간염 백신

-대상: 간 질환인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시니어다. 감염은 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전염이 흔한 다른 국가로의 여행, A형 간염 감염자와의 긴밀한 접촉 또는 기분 전환용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8. B형 간염 백신

-대상: 간 질환인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있는 50세 이상 시니어다.

-빈도: 백신 접종을 받는 성인은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접종 후 4주 후에 2번째 접종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접종 후 5개월 뒤에 3번째 접종.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한 혼합 백신인 Twinrix도 있는데, 이는 6개월에 걸쳐 3회에 걸쳐 투여된다. **장병희 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가자지구는 야외 감옥... 부상자 밀려오는데 약·전기 고갈”

“엿”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보니 병원 구급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폭격에 다친 이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형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 가자지구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국경없는의사회(MSF) 활동가들은 “이 엄청난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넘게 가자지구에 6000발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다. 지난 11~12일 가자지구 MSF 활동가들을 서면 인터뷰했다.

MSF는 가자지구에서 약 300명의 활동가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하고, 알아우다 병원 등 3개 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MSF에 따르면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16년째 봉쇄되면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식량·물·전기 등을 끊으면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가자지구의 의료 코디네이터인 다윈 디



지난 11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입어 가자시타 쉬파 병원으로 이송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이스라엘군 폭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가자 지구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4일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가는 육로인 ‘라파 통로’에서 이집트에 입국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 [AP·UPI=연합뉴스]

아즈는 “마취제와 진통제가 고갈되고 있다”며 “응급용으로 비축해 두었던 2개월치 물자를 알아우다 병원으로 보냈는데, 3일 만에 3주치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공습으로 의료시설과 물자 파

괴가 너무 심해 그 늘어나는 피해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라며 “가자 지구는 동서남북이 모두 막힌 ‘야외 감옥’”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을 총괄하는 레오 칸은

“여력이 닿는 데까지 수술하려 하지만 물자도 전기도 고갈되고 있다”며 “어제 집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져 전신에 화상을 입은 13세 소년이 왔는데 치료가 어려워 마음이 힘들었다”고 안타까

워했다. 그는 “한밤중에 (이스라엘군의) 대피 문자를 받으며 아이들을 깨워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집을 떠난다”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저 폭탄들이 떨어지는 바깥에 나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가자지구 현장 책임자인 마티아스 켄네스는 “파편에 다치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 하루에 50명 이상을 밤낮으로 치료하고 있다”며 “병원엔 과부하상태고 우리도 지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구역별로 초토화하고 있다”며 “병원 등 일터로 나갈 때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전력이 끊기면 병원은 영안실로 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MSF는 무차별 유휴 사태를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소영 기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국경 문 닫은 이집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대피령을 내리면서 이집트로 향하는 민간인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가 국경을 막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문제가 된 곳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시나이반도로 가는 유일한 육로인 ‘라파 통로’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측은 언론에 “가자지구의 미국민 등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이집트와 파와 맞닿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이집트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이집트-이스라엘-카타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집트는 국경을 본격적으로 개방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집트 국경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수만 명의 발이 묶였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결국 이집트로 넘어가지 못해 국경 인근 모든 아파트 한 집에 20~30명이 머무는 실정이다.

이집트가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고 임시로 시멘트 장벽까지 세우는 등 봉쇄를 강화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집트 측의) 국경 개방 공지가 없을 수 있고, 제한된 시간에만 열릴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반면에 사미

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CNN에 “라파 통행로는 공식적으로 열려 있다”며 “다만 공습으로 가자지구 쪽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집트에는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 과거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하며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집트 정부는 대규모 팔레스타인 난민 유입을 우려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지원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집트는 대량 난민 사태가 정치·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난민 사이에 끼어 이집트로 유입되면 정세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피란이 영구 이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집트 경제 상황이 나쁜 것도 난민 허용에 악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이집트 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집트 국가채무가 올해 GDP의 92.9%로, 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난민까지 허용하기에는 국민 눈치가 부담스럽다는 해석도 있다.

서유진 기자

러와 무기 선불거래, 중국과 신압록강대교 연결

‘대미 장기전’을 예고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전략적 생존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운송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개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나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난 9월 7~8일 나진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과, 같은 달 12일 러시아 국적 선박인 양가라호가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시설이 포진한 두나이항에 컨테이너를 싣고와 정박한 모습이 담겨 있다. 또 10월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 러시아 티호레츠크의 탄약고에도착한 모습 등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미국이 공개한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기존 대외 협상 패턴과 다른 과감한 거래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한국과 협상할 때는 선택지조차 먼저 공개하길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러시



아와의 거래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부터 무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제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이었다는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인근에서는 최근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개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이 22억 위안(약 40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했지만, 북한이 신의주 방향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 건설을 별다른 설명 없이 미루면서 개통이 지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3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주 신압록강대교에서 차량 활동이 증가했다며 곧 완전히 개통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압록강대교 일대를 지난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중국 세관 구역에서 버스로

추정되는 대형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고, 북한 지역에서도 크레인·트럭 등 여러 종류의 차량과 건축 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

이런 정황은 북·중·러 밀착을 과시하고 싶은 북한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삼각 군사협력에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나름의 각개격파식 접근에 나선 것이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과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분위기가 감지되자 공통 관심사인 경제·무역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라며 “중국이 최근 수감 중이던 탈북민의 복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정영호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이십 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결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격정도 많고, 금근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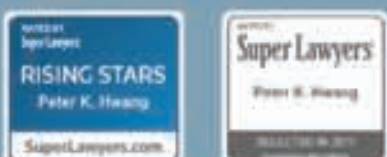


필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여당, 용산 여의도출장소냐” 비판에도 의총 “김기현 체제로”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버렸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에 대한 15일 여권 관계자의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당이 휘청거리는 상황을 빗댄 말로, 그는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힘 쇄신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상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뿐 아니라 여당의 무비판적 용산 추종 성향이 현재 여권의 위기를 조래한 근본적인 이유로 꼽는 사람이 수도룩하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김태우 전 구청장 재공천 과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무공천”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결국 김 전 구청장은 재공천됐다. 당 안팎에서 “용산의 뜻이 여당을 놀렸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당정협의, 여당과 조율 모양새만 취해”

이념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육군 사관학교에 있던 항일 독립운동가 흥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계획을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이념 논쟁이 당에 도움될 게 없다” “국방부 장관이 실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동안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사흘 뒤 당 의원 연찬회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4시간20분 의총 결론은 대안부재론

“비대위 체제 혼선 더 위험” 공감대 대표 사퇴 요구한 의원 1명도 없어 김기현 “총선 패배하면 정계은퇴”

대통령실 뜻에 따라 당 휘청거리

당정 수직→수평관계 복원 목소리 김태우 공천, 흥범도 논란에 둘러리 “대통령에 여론가감없이 전달돼야”



이철규 박성민

참석한 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 ‘이념 논쟁’에 가속을 붙이자 그제야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 협의 참석 경험이 있는 당 관계자는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정부에서 결과를 담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온다”며 “기작성만 자료를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 여당이 둘러리를 서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비윤계 중진인 사병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당이 대통령실 뒤처다꺼리에만 골몰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면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현 당 대표를 향해 “정부가 민심과 옳바름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결기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해소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김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말을 보탰다.

이철규 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 사퇴

전날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강한 상황에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표 사퇴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비공개 의총에선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이용 의원)는 친윤계의 발언부터 대통령실의 불통과 독주를 비판하고, 김 대표 체제의 무기력을 지적하는 비윤계의 반박도 나왔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해 의총은 4시간20분이나 지속했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를 요구했던 사병수·최재형 의원도 그랬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이 끝날 무렵 15분여간 마무리 발언을 하며 “총선에서 지면 모두 공멸한다.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여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해 결국 보수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할 말은 하고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김행 전 여섯가족 부 장관 후보자 사퇴도 내가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궐선거 패배로 ‘총선 위기론’이 현실화됐지만 ‘대안부재론’에 더 힘이 실린 까닭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모두에 “비대위 체제가 불러올 혼선이 더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비윤계 내부엔 “용산이 하향식 비대위원장을 내리꼴을 경우 김 대표보다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총선까지 당의 안정을 바라는 친윤계, 또 비대위 출범 시 대통령실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비윤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의총이 끝난 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김 대표는 “(당직)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 중진인 유의동 의원이 유력하고, 총선 공천 실무 담당할 사무총장에는 직전까지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박대출 의원이 거론된다. 수석 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이 유력하다.

김다영·김기정 기자

한국 자동차·UAE 원유 10년 내 관세 없앤다... 중동국과 첫 FTA 체결

CEPA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목표 온라인게임·의료 진출도 빨라질 듯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진행해 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타결됐다. 아랍권 국가와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14일 서울에서 한국-UAE CEPA 협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다. CEPA는 기존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다양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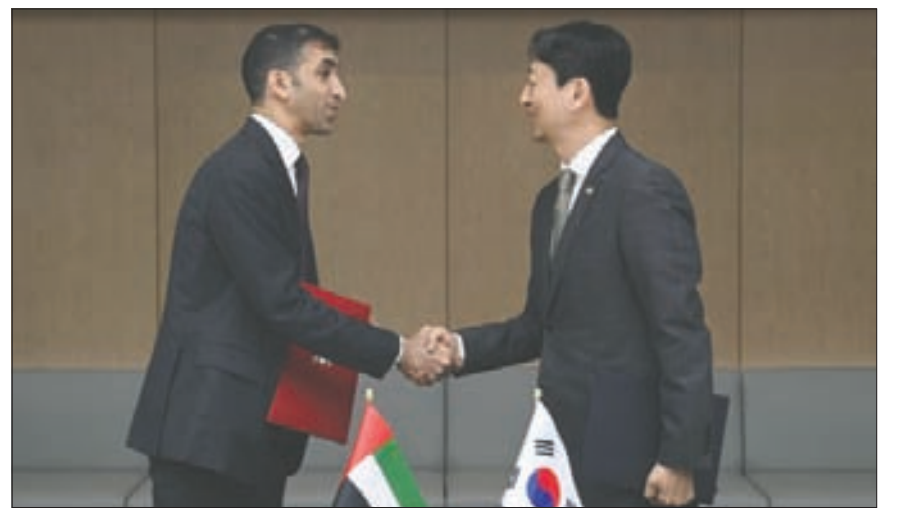
의 포괄적 교류·협력이 강화된 FTA를 뜻한다.

정부는 UAE와의 CEPA 타결이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신(新) 중동 붐’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상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하반기 들어 빠르게 진행됐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5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기업 178곳이 UAE에 진출해 있다.

CEPA가 발효되면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는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

를 각각 10년 이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에 붙는 관세가 사라진다. 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 식품, 조미김·멸치·전복 같은 수산식품에 매기는 관세도 철폐된다.

반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3%의 수입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가 개방되면서 ‘K-게임’ 진출이 빨라지고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대한상에서 열린 한-UAE CEPA 서명식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종훈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뱀뱀)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 대통령실, 당에 공천자율권 줘야”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쇠신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한 가운데 15일 소속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쇠신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당 안팎 ‘김대표 책임론’의 여진이 가실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바람을 일으킨 청년 정치인 천하람(37·사진)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원의 당협위원장들이 부글부글한다”며 “김 대표의 용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 분위기는
“이기양양하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



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약진했다. 그런데 이번엔 주민들이 ‘천 위원장,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와. 현 정부는 끝났어’란 말을 공공연히 한다. 호남이 이 정도면 대구·경북은 몰라도 부산·경남은 동요할 수 있다.”

-당 안팎 위기감은
“원의 당협위원장들이 ‘지도부 물러나라’는 연관장을 돌리겠다고 부글부글한다. 당은 집권 1년 반 내내 대통령실에 반대 의견은 커녕 대안 제시 한번 못한 결과 참패했다. 그런데 쇠신은 보

이지 않고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몸부림만 느껴진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지는 거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다. 용퇴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공천이다.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고 공정한 공천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실이 당에 ‘낙하산 공천은 없다’며 공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 소통은
“의원들이 용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 공천 잘릴까 봐 잔뜩 졸아있다. 방송에선 ‘대통령실 문제없다’고 하지만 의명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이런 지

지용되는 총선 못 치른다’고 난리치지 않나. 그 차이가 바로 의원들의 공포를 상징한다. 의원총회도 ‘침묵의 카르텔’이 심각하다. 비주류로 찍힌 몇몇만 말을 할 뿐 죄다 입을 닫고 있다. 오죽하면 나한테 ‘당신이 쓴소리 좀 해 달라’고 전화했잖나.”

-대통령 소통 스타일은
“대통령이 남의 얘기 잘 안 듣기만 하지는 않음 거다. 오히려 ‘꾸준히 얘기하면 듣는 분’이란 말을 들었다. 다만 그런 참모가 대통령실에 드문 것 같다. 따라서 이념적 정체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겸비하고 대통령과 신뢰가 두터워 결정적 순간에 직언할 수 있는 이가 비서실장이 되어야 한다. 김대기 실장도 좋

은 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교체가 불가피하다.”

-지금 20·30대 표심은
“내 또래(30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에 실망이 매우 크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를 찍었을 때 바란 게 불공정 일소였는데 전 정권 불공정만치고 자신들 내부의 불공정은 안 치니 전 정권과 다른 게 뭐냐고 하더라.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왜 하나 없느냐고도 하더라. 또 다른 이유는 인사나 정책이 거칠다는 거다. 일례로 연구개발(R&D) 예산 낭비가 발견됐다면 문제된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해 버리니까 거부감이 크다고 한다.”

강찬호 기자

IMF “한국 국가부채 비율 5년 뒤 58%”

빛 증가 빨라... 올해 54%서 급증

정부가 ‘긴전 재정’을 앞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한국의 나랏빚(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규모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선 긴축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재정준칙처럼 강력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54.3%(예상치)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비율이 5년 뒤인 2028년 57.9%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경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4위였던 순위가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뛰게 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I: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해 나라 간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된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39~40%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치솟더니 2022년 53.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 정부가 경제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폭증한 탓이다.

일각에선 지금처럼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2028년 한국의 부채비율이 미국(137.5%)·영국(108.2%)·일본(252.8%) 등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 같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유로·일본 엔화·영국 파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는 준기축통화국으로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이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찍어 나

랏빚을 갚을 수 있는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일이 없어 빛이 늘어나면 위험하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폭락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구하지 못하면 1997년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특히 더 빠르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라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향후 5년 뒤엔 부채비율이 57.9%까지 상승해 2023년보다 3.66%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홍콩(3.57%포인트)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이후에도 가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크리스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모로코 마라케시 IMF 연차총회에서 진행된 한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각에선 경기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목포 찾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입장하는 선수단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 추진을”

김기현 2기 체제로 수습 메시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차분하고=김기현 대표 체제 그대로’ ‘지혜롭게=수도권 민심을 토대로’ ‘변화 추진=민생에 더 가까이 가자’란 뜻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꾸려 민심을 받들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차분히 수습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튿날인 14일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표를 낸 것도 김기현 대표가 주말 새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진용을 짜겠다”고 의사를 전한 뒤, 용산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 대표의 퇴진은 용산의 선택지에 없다고 한다. 대안 부재론이 이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이유로 당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건 아직 선부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역대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대위’가 전후후무하다”며 “당 권력 진공 상태에 따른 아노미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별도로 대통령실 순차 개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필두로 내년 총선 출마 후보군이 11월 7일 대통령실 국정 감사 이후 물러나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를 가속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전 정권 과오 바로잡기’ 행보를 주로 했다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이슈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권호·현일훈 기자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변화 단위: %, 예상치

2023년	2028년
싱가포르 167.9	1 싱가포르 170.2
아이슬란드 61.2	2 한국 57.9
이스라엘 58.2	3 이스라엘 56.9
한국 54.3	4 뉴질랜드 47.7
뉴질랜드 46.1	5 체코 42.9
체코 45.4	6 아이슬란드 41.8
안도라 37.7	7 노르웨이 34.5
노르웨이 37.4	8 안도라 31.1
스웨덴 32.3	9 스웨덴 29.7
덴마크 30.1	10 덴마크 28.6
홍콩 1.61	11 홍콩 1.97

자료: IMF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메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I St, NW #400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우리말 바꾸기

‘우연한’, ‘우연찮은’

길을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이를 ‘우연한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찮은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한 만남’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우연찮은 만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맞는지는 헷갈린다.

‘우연찮다’는 ‘우연하지+아니다’의 준말이다. 구조상으로 ‘우연하다’를 부정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대로 풀이하면 “우연찮게 만났다”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도해 만난 것이 된다. ‘시원하게/시원찮게’ ‘수월하게/수월찮게’ ‘심심하게/심심찮게’ 등이 각각 반대 뜻을 생각하면 ‘우연찮게’ 역시 ‘우연하게’의 반대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우연찮다’가 원래는 ‘우연하다’와 상반된 뜻이지만 ‘우연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현실을 감안해 동일한 뜻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다만 ‘우연찮다’는 ‘꼭 우연한 것은 아니나 뜻하지도 아니하다’는 다소 모호한 설명을 달았다. 어쨌거나 ‘우연한’ ‘우연찮은’은 어느 것을 써도 문제가 없다. 원래는 반대 의미가 돼야 하나 이처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로는 ‘영터리다’ ‘영터리었다’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뜻으로 둘 다 쓰이고 있다. 즉 “그사람 말은 영터리야” “그사람 말은 영터리었어” 모두 같은 뜻의 말이다.

‘주책이다’ ‘주책없다’도 마찬가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 힘 모아야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사무실 또는 정부기관과 회의를 했다. 지지 서명 2만 개를 받았고, 4600여 통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이민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통과를 막아 법 제정이 무산됐다.

입양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또 법안 재상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로비활동도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 전국에서 모인 단체 대표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연방 상원·하원의원들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한다.

입양인들도 한인사회의 일원이며 많은 입양인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해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운동, 정치력 신장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인사회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민’이 아니라 ‘인권’ 이

슈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한인들이 펼친다.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구걸’이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법안도 ‘이민법 개정’이라고 간주하고 법 제정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시민권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입양인들이 들으면 팔짱 땀 일이다. ‘이민’은 인권 이슈가 아닌 말인가? 입양인들은 법 제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한인 입양인 활동가인 NAKASEC 베키 벨코어 사무총장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많은 한인 입양인들은 남북 이산가족처럼 한국전쟁의 피해를 본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은 또 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이들 모두가 이산가족이다. 분단 이산가족들과 입양인들과 한인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가 아픔을 겪는다. 우리는 모두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

‘입양’이 ‘이민’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입양인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무슨 까닭인지 이 주장을 펼친다. 제발 입양인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입양’도 ‘이민’이며 모든 이민 이슈는 ‘인권’ 문제다.

살며 생각하며

우리 아이 뇌 속에 무슨 일이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능을 담당한다. 앓, 이 순간,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마구마구 떠오른다. 아찔하다. 덩치도 커지고 나이도 먹어가는 우리 자녀들, 왜 어릴 적에도 안 하던 충동적 행동을 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뇌는 생애 초기 십여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신경세포인 뉴런(Neuron)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뉴런을 연결해주는 뉴런 사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연결조직인 시냅스 숫자도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이 시냅스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유는 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쓰는 시냅스는 남기고 불필요한 시냅스는 가지치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역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이 시기에 최고로 발달하는 부위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amygdala)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위가 미성숙하고 약화하다 보니, 편도체에 크게 의존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현기증 나는 감정의 오르내림을 계속하는 이유다. 또한, 이 시기에 감소한 시냅스 숫자로 인해, 앞뒤 결과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즉각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아슬아슬함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르겠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18세가 되면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부모들에게, 성숙에 필수적인 전전두엽이 만 25세 정도나 되어야 완성되고 30대에도 성숙 과정이 계속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학에 가서, 심지어 졸업하고도 힘들어하며 방향을 거듭하는 20대 친구들이 꽤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전전두엽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학습 능력과 메모리에도 관여할 뿐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장애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d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Korea Daily 중앙일보

2023년 한인 경제생활 설문조사

2023 SURVEY EVENT

미주 한인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고 선물받자

참여기간 **2023년 9월 25일 ~ 10월 25일**

- 참여방법
1. 우측의 모바일 QR코드 스캔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
 2. www.Koreadaily.com 이벤트 배너 클릭!
 3. http://bit.ly/bohkd2023 접속

경품응모 설문조사 완료 시 자동응모

경품발표 2023년 11월 15일 (예정 / 별도 공지)

지금 바로 스캔하세요!



bit.ly/bohkd2023

설문조사 5분에 풍성한 선물까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PALACE II
<요트 디자인과 프리미엄 기능이 적용된 럭셔리 안마의자>

\$8,500 상당 1명



AIR PREMIA
한국 왕복항공권 (LA-인천)

1명

1명

coway
공기청정기 AP-2318D
\$1,300 상당



3명

\$500 VISA
기프트카드



5명

경동 나비엔 카본매트(더블)
\$500 상당



20명

\$100
아마존 기프트카드



100명

\$2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김민경
이민/비자 미국 변호사

Q 고학력 독립이민 영주권

▶문=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이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한다. 승인 후에도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긴 국무부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라도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대

신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NIW는 미국에서 높은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이후 신분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는데 현재 30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신분변경을 위한 I-485를 진행하면서 노동 허가 카드와 Travel Document를 동시에 접수하고 이 부분은 신분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승인이 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을 하는데 문

제는 없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여 EB-2 스폰서 자격을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회사와 EB-2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듣는다. 그럴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을 위해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답= 이 경우 미국 내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영주권 진행 중 한국 회사 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I-140에 기입된 경우 이 절차를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이 있더라도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폴 정
교육 박사

Q 효율적인 의대 입시 전략

▶문= MCAT 시험 준비는 얼마 동안 공부해야 만족할 점수를 받을 수 있나?

▶답= 스템 연구소 2023 겨울방학 MCAT 합숙 캠프가 12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5주간 버지니아 엠버시 호텔에서 시작된다. 강사진들은 MCAT 시험에서 모두 520점 이상을 받고 미국 명문 의대에 합격한 의대생들이다. 그렇다 보니 배우는 학생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의대 준비를 위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스템의 MCAT 캠프 프로그램은 아

침 8시부터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 10시까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주간 체계적으로 짜인 캠프를 마치고 떠날 때 한결 같이 하는 말은 “캠프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제 MCAT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점수를 잘 받을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한다.

합숙 캠프를 마친 후에도 학생들은 MCAT 시험 볼 때까지 6~8주는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스템 연구소의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지도 받은 학생들은 캠프 후 첫 시험을 볼 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받고 일주일

단위로 실전 테스트 점수를 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템 연구소는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시험 볼 시기 또한 조언해 주고 있다.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많은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큰 고비는 MCAT 시험이다. 그동안 상담한 많은 학생들을 보면 MCAT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의대를 포기하는가 하면 여러 번 시험을 보느라 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험 준비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의대 진학의 목표가 있어도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직을 하고 자립적인 사회인이 되어 갈 때 여전히 학생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부모들도 힘들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길이 보이지 않아 외로울 때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의대 선배들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MCAT 캠프는 모두가 같은 길 의대 진학이 목표다.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Q 레몬법 적용 대상과 절차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귀하의 차량이 대리점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경우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조사의 결함이 종종 발견된다. 다행히도 귀하를 보호하고 제조업체/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레몬법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횟수의 시

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레몬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심지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수리 기간은 결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인증한 수리 시설에서는 누적 30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 (여러 대리점 방문을 합산해 누적 30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리 시도를 완료하

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레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제조업체의 수리 시설로 가져가면 수리 주문이 접수된다. 이 명령에는 차량이 반입된 날짜와 수리가 완료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시설에서 시도한 횟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매장에 보관된 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해당 횟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적이든 아니든) 유효한 레몬 청구가 가

능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수리를 수행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문= 그렇다면 레몬법 청구가 검증되기 전에 몇 번이나 수리 시도를 해야 하나?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게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의 수리 시도 실패로 인해 레몬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한 번의 시도 실패로 충분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중현

한의원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TASTE OF TRADITION IN KOREA | MORE
대한민국 대표 김치 브랜드 | 잘담근김치

TIMELY BASKET.com

100% 한국에서 만든

잘담근 김치 전국 신선 배송

김치의 미학을 맛보다!



~~29.99~~
\$21.99

단, 열무김치, 총각김치 1인당 1박스 구매가능

\$8 할인코드

AT23KIMCHI

온라인 주문만 가능합니다

행사기간: 10월 16일~28일



총각김치 2.5kg
NATIVE RADISH KIMCHI 5.52LB



포기김치 3.2kg
WHOLE CABBAGE KIMCHI 7.06LB



열무김치 2.5kg
YOUNG RADISH KIMCHI 5.52LB



2020 대한민국 김치의날 대통령상 수상

모든 김치는 신선포장으로 발송해드립니다.

TIMELY BASKET.com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October 16, 2023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9월 물가 3.7% 상승 ... 내달 금리동결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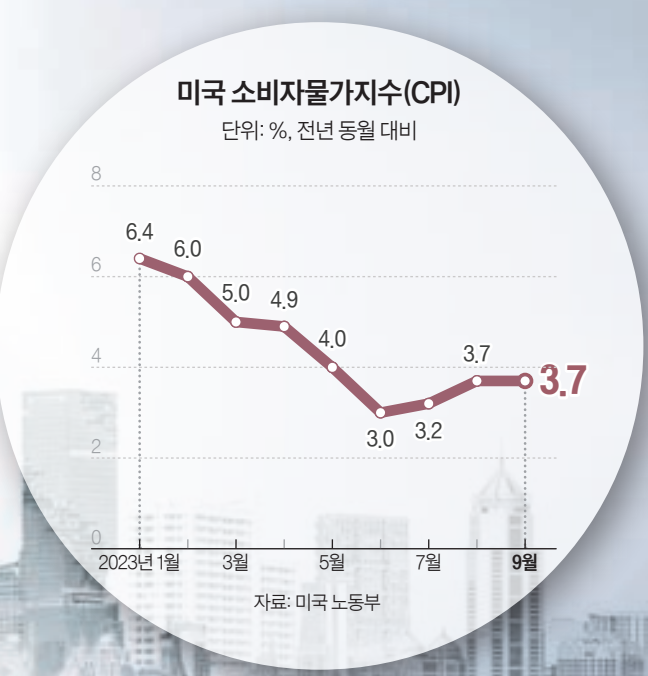
CPI 전망치보다 0.1%p 소폭 웃돌아
근원 CPI도 증가폭 줄어 둔화흐름
'금리 동결' 시장 예상 93%로 상승
Fed, 인상 중단 공식화는 안할 듯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근원물가(전년 대비)는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노동통계국은 미국의 지난달 CPI가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3.6%)를 0.1%포인트 소폭 웃돈다. 전년인 올해 8월(3.7%)과 상승 폭이 같다.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근원 CPI는 전년보다 4.1% 올라 8월(4.3%)보다 증가 폭을 0.2%포인트 줄였다. 근원 CPI는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물가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쓰인다.

시장은 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에 묶어둔 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CPI 발표 직후 약 93%에 달했다.

다만, Fed가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하지 않는 '파괴적 동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치(2%)를 여전히 크게 웃돌아 선택지



를 열어두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향후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위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11일 Fed가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제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다수가 "물가상승률 목표(2%)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 차례의 기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일부는 "더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몇몇 위원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높게 올릴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로 정책 결정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거나 정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위원들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현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상·하방 압력이 공존하고 있어서다. ▶국채유가 상승 ▶식량 가격 상승세 등이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노조 파업 장기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은 경기를 끌

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사록은 "위원들이 정책 결정에 있어 '위험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경기침체)과 불충분한 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물가상승)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사록 속 비둘기파적 의견에 더해 장기금리 급등세를 조망했다. WSJ은 "9월 회의 이후 장기 국채금리가 0.4%포인트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속화됐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Fed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효정·서지원 기자

▶2면 '금리'로 이어집니다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로버트 케들 Robert Cadle
노승훈 Robinson S. Rown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rrowe@rowepllc.com
abush@rowepllc.com

MD 301-770-4710
1401 Rockville Pike, Suite 110
Rockville,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판단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이란, 이·팔 전쟁 가담 땀 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치솟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경제가 시름하는 상황에,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물고울 파장과 경제 진단을 위해 긴급 전문가 지명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으로부터 거시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 영향은 어디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지정학적 리스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초기에는 그 영향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일부에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급등은 아니더라도 위험이 있다. 내년 경기 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다.

▶김학균 센터장=세상이 평온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사우디가 원유 증산으로 유가를 낮게 유지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도록 미국을 도와준 측면이 있다. 지금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나타난 갈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중동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유가도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서상영 본부장=미국과 이란은 중동 리스크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산유국인 이란의 가담 여부가 중요하다. 하루 200만 배럴 수준인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를 야기할 수 있다. 다행히 산유국의 개입 없이 마무리되면, 연말에는 사우디가 감산 조치를 해제하고 중국의 소비도 늘어나면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다.

4분기 이후 경제 전망 및 투자 전략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중동 리스크	달러 강세 등 영향 일시적	인플레이션·유가·자국 위험	유가 상승 리스크	영향 제한적이나, 이란 가담 시유가 급등
4분기 이후 경기 흐름	미국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개선, 미국 둔화, 중국 부진	경기 둔화 (4분기는 완만한 개선)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침체 (4분기는 완만한 개선)
금리 전망	미금리 인상 종료	'높게, 더 오래' 기조 유지	미금리 인상 종료	미금리 동결 (연내 1회 인상은 가능)
환율 전망	일시적 달러당 1400원 돌파, 연말엔 1300원 하회	일시적 달러당 1400원 돌파	연내 달러 강세 유지	연말 달러당 1400원 돌파 (이때가 고점)
유가 흐름	배럴당 80달러 안팎	현재(배럴당 86달러, 10일 기준) 보다 높은 수준	현재보다 높은 수준	확전 안되면, 현재 수준에서 안정세
국내 증시 전망(4분기)	코스피 연말 2600선 상승	반등 가능성 제한적	코스피 2400-2500 (약한 상승)	코스피 2500 전후

경제 전문가 4인에게 물어보니
고금리에 유가 올라 인플레이 자국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원화값, 달러당 1400원 깨질수도
코스피 2500 오가는 박스피 예상 금리 정점, 국채·금 투자 해볼만

▶김영익 교수=중동 리스크로 현재 자산시장에선 금과 달러가 강세를 띤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시적으로 본다. 전쟁이 확산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번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 글로벌 긴축은 언제까지.

▶서상영=연준이 현재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준 위원들이 장기금리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매파적 주장을 하는 위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11월 또는 12월에 1회 정도 금

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국채 금리는 빠질 것이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지만,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김영익=지금은 고금리·고물가에 유가까지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데, 내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원유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당장 4분기부터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올해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4분기에 수출이 개선되며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시점도 현재 시장 전망보다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내년 1분기부터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한진=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고, 교역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경기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어렵다. 수출국들은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면 다행이다 그런 정도다.

-외환시장도 널뛰고 있다.

▶김영익=달러 강세로 일시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달러당 1400원까지 갈 수 있다(환율 상승). 하지만 11월 이후에는 1300원 선까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4분기 이후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균=최근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금리도 동결 예상이 많다. 그러면 한·미 금리차로 인한 원화 약세 우려는 낮아진다.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달러당 1400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향후 2~3년까지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반대(원화 가치 상승)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 자산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서상영=우리 증시는 현재 박스권 하단에 이른 수준이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안정을 찾으면서 한 번 정도 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지수는 2500 돌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이슈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도 어렵다.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로 2500을 기준으로 아래위로 100포인트를 오가는 테마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 전략도 좋다. 어느 날은 2차전지가 확 빠졌다가, 어느 날은 바이오가 가는 식으로 시장이 요동칠 때 저가매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도 견조하기 때문에 조정 시 투자가 현명해 보인다. 채권은 국채 위주로, 우선 단기물을 보다가 채권 금리가 빠지는 게 확연히 드러나면 장기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씩 장기물을 담아가는 것이 좋다.

▶김영익=침체가 오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지금이 채권 투자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금 투자도 좋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올라간다.

▶김한진=다음 주부터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만약 빅테크 기업의 이익이 예상대로 견조하다면 주가는 빠지기 힘들다. 전쟁 중이라 섀블리 금리를 움직일 상황도 아니다. 물가지표 등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약간의 숨 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보다는 덜 갈 수 있다. 예컨대 4분기 미국 증시가 10% 상승한다면, 한국 증시는 4~5% 수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 주식은 조심하자. 미국 빅테크 등 혁신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검증된 주식 안에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김학균=금리가 중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발행한 위험이 거의 없는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다. 이자율이 높을 때, 주식 투자의 매력은 적어진다. 더욱이 지금 주식 가격은 대체로 싸지도 않다. 금리가 안정화되기까지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현정기자

> 1면 '금리'에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필립 제퍼슨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Fed 인사는 최근 들어 장기금리 급등세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높여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CME 페드워치는 현행 기준금리(5.25~5.5%)가 내년 5월까지 유지된 뒤 6월에 첫 금리 인하(-0.25%포인트)가 시작돼 연말에는 4.5~4.7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ALTY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SOLD Pikesville \$939,000 싱글홈, 방5, 화4, 차고2	 SOLD Columbia \$889,000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큰 렌치스타일 리버힐교회 학군	 SOLD Ellicott City \$819,000 싱글홈, 방5, 화4, 차고2	 UNDER CONTRACT Woodstock \$639,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3000sf	 UNDER CONTRACT Hanover \$588,000 타운홈, 방4, 화4, 3024sqft
 UNDER CONTRACT Hanover \$570,000 타운홈, 방3, 화2.5	 UNDER CONTRACT Laurel \$547,000 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	 UNDER CONTRACT Gaithersburg \$525,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SOLD Hanover \$490,000 타운홈, 방3, 화3.5, 차고1	 SOLD Perry Hall \$45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ED Silver Spring 월 \$2,700 타운홈 방3, 화장실2.5, 내부수리 완료	 RENTED Ellicott City 월 \$2,600 방3, 화장실3.5, 센테니얼 하이스쿨	 RENTED Odenton 월 \$2,000 콘도 방2, 화1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End Unit, 전체마루	 RENTED Ellicott City 월 \$2,100 콘도 방2, 화장실2, LOFT	 RENTED Ellicott City 월 \$2,000 콘도 방2, 화2, 섀클
--	--	--	--	--	--

스마트 은퇴설계, 현실적이고 적절한 기대수명 반영

은퇴설계의 실제

은퇴설계라고 하면 대부분 저축과 투자를 떠올린다. 그만큼 은퇴자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은퇴설계의 실제는 은퇴 전까지의 자산증식만큼이나 은퇴 이후 모아둔 자금을 적절하게 꺼내 쓰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어쩌면 저축 및 투자 플랜보다 인출플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기대수명

현실적인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야 한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용, 은퇴 후 나올 수 있는 소득원과 금액, 은퇴 기간, 인플레이션, 이자율, 정부의 사회보장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증액률, 세율 등 다양하다. 이들 요인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출발부터 어긋나기 쉬운 것은 은퇴 기간이다.

보통 은퇴 기간을 생각할 때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65세 은퇴 후 기대수명이 85세라면 20년의 은퇴 기간을 생각하는 식이다. 20년이라는 은퇴 기간을 전제로 필요한 자금 규모나 사용 가능한 생활비용, 이 비용을 충당할 소득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제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은퇴자금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대수명

기대수명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몇 군데서 알아볼 수 있다. 연방 사회보장국이나 질병통제센터(CDC)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국세청(IRS)의 최소의무인출(RMD) 기대수명 테이블이다. RMD 테이블은 IRA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은퇴계좌 자금을 대한 강제 인출 규정에 사용되는 표를 의미한다. 다음은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기대수명 자료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기대수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중 어떤 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대부분 사회보장국과 CDC의 기대수명 자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은퇴설계를 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에서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IRS나 보험사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



기대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플랜을 수립하면 노후에 자금 부족에 시달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들의 기대수명 추정치가 가장 현실에 가까워
부부, 둘 중 한 명은 90대 중반까지 생존 가능성 고려
65세 은퇴 기준 최소 95세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인플레, 세율 등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과해선 안돼
변수 대비한 보수적 접근 필요, 비과세 소득원도 준비**

IRS/CDC 평균 기대수명 (표1)

	M-SS/CDC	M-IRS	M-Life Co	F-SS/CDC	F-IRS	F-Life Co
45-Year-Old	78	86	85	82	86	88
55-Year-Old	79	87	86	83	87	88
65-Year-Old	82	88	88	85	88	90
75-Year-Old	85	90	90	87	90	92

건강상태에 따른 기대수명 (표2)

	M-Preferred	M-Table 2	F-Preferred	F-Table 2
45-Year-Old	88	82	90	85
55-Year-Old	88	83	91	85
65-Year-Old	90	85	92	87
75-Year-Old	92	88	94	90

이다. (표1 참조)

세 종류의 남녀 기대수명 자료를 보면 사회보장국·CDC 추정치는 IRS나 보험사들의 추정치와 많이 차이가 난다. 훨씬 짧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숫자는 보험사의 추정치다. 보험사의 추정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그들의 '업'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험사이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기대수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비용 산정이 잘못되고 수익모델이 망가진다. 정부 기관인 IRS도 이런 류의 추정치에 대해선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기대수명에 있어서는 사회보장국이나 CDC보다 훨씬 정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IRS가 추정하는 기대수명과 보험사

라 5~6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현실적인 은퇴설계에서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이 더 오래 살 경우의 기대수명은 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평균적인 건강과 양호한 건강 상태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지만 55세를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여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오래 사는 이의 기대수명은 건강한 경우 95세로 추정되고 있다. (표3 참조)

▶현실적·적절한 기대수명 중요 이유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은퇴기간에 대한 현실적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 잘못된 전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그만큼 계획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79세까지를 준비하는 것과 95세까지를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부의 경우 가능한 둘 중 한 사람이 95세까지 산다는 전제로 은퇴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변수의 중요성

기대수명과 은퇴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섰다면 이제 다른 변수들을 생각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이자, 세율 등이 중요한 변수들일 것이다. 이 역시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최근 몇 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계속된 적자 누적과 지출 확대는 세율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은퇴 후 세율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소득이 줄어도 세율은 같거나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변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너무 안일한 수치를 전제로 계획하는 것보다 이 역시 가능한 보수적 접근을 통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RA나 401(k) 등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플랜들은 지금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이와 함께 자금 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분산, 다변화를 할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켄 최·아메리츠 애셋 매프

부부 중 한명의 기대수명 (표3)

	Standard	Preferred
45-Year-Old	92	95
55-Year-Old	92	95
65-Year-Old	93	95
75-Year-Old	94	97

들이 추정하는 기대수명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보험사들의 추정치에 대해 신뢰를 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의 표는 평균 기대수명이다. 현실적인 기대수명은 사실 건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IRS나 사회보장국, CDC 등의 기대수명 추정치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추정치는 이 부분을 반영한다. (표2 참조) 건강한 55세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은 88세이고 여성은 91세이다. 보험사에서 테이블-2등급을 받았다면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 55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3세, 여성은 85세이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건강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

2024 메디케어 보험 변경기간 및 신청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과 신청

더 좋아진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되실 분 상담 환영"

어드벤처(C플랜) 서플리먼트 갭 플랜 약 보험

치과

안과

보청기 혜택

비처방약 혜택

운동시설 혜택

- ◆ 보험변경 하실분
- ◆ 1959년생
- ◆ 약커버가 안되는 분
- ◆ 메디케이드 소지자
- ◆ 파트 B 보험료 보조옵션

자유롭게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 전화 주세요!

☎ 703-591-0009 / 703-537-9899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힐스트 / 웰케어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IPO 시장

슬리퍼로 유명한 버켄스탁(Birkenstock)이 11일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됐다. 상장가(IPO Price)가 46달러였으나 첫 거래를 41달러로 시작하며 신주 상장으로는 드물게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첫 하루를 보냈다.

그동안 냉각기를 보내다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신주 공모 시장이 아직은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상장된 반도체 업체 ARM 홀딩스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공모가 51달러에서 첫날 거래를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63.59달러에 마감했으나 이후 한때 공모

가 보다 낮은 가격까지 하락하다 현재 약 55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식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도 공모가 30달러로 상장 첫 거래가 공모가에서 무려 40% 급등한 42달러에 거래됐다가 33.70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쳤으나 지금은 공모가 보다 낮은 25달러대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주 공모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회사가 절차를 밟아주며 공모가의 산출은 기업 가치평가와 '로드쇼(Roadshow)'라고 불리는 기관투자자나 소위 '큰손'들에게 기업 소개를 하며 관심도를 높여 공모가 산출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어느 범위에서 공모가가 정해질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버켄스탁 같은 경우 44불에서 49불 정도에 공모가가 정해질 것으로 평가됐다. 마지막 공모가, 즉 상장가는 상장 하루 전에 결정된다.

대부분의 상장주는 주식 거래 전 청약을 통해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고 일반 투자자들 청약을 해도 청약한 액수를 전액 배당받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일반 투자자라고 해도 주거래 증권사가 신주공모의 주관사일 경우 청약한 주식의 일부를 배당받을 기회가 생기게 된다. 버켄스탁처럼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시작

하는 경우 주관사인 증권사가 주식 매수에 나서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증권사 입장에선 적정가에 주식을 상장해야 한다.

최근 상장된 주식들의 움직임으로 보아선 신주 시장은 아직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증시를 움직이는 심리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퍼질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긴장이 감돌고 있는 코소보 세르비아 등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외적인 요인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

목돈 넣고 매달 일정 금액 받는 연금
평생 수입 보장·사망보상금·세택유예

지난주 만났던 고객과 나는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젊었을 때 들어 놓았던 평생보장 수입인 인컴 어뉴이티가 지금은 얼마나 삶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 권유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보험회사에 넣고 인컴을 받을 시점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죽을때까지 보장받는 연금을 말한다.

어뉴이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평생 수입을 개런티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마련한 돈에 대해서나 이별로 정해진 일정한 퍼센티지를 사망 시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퇴자금을 다 쓰고도 살아있을 위험(Longevity Risk)을 커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뉴이티의 기본 원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연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금 유예 혜택이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싱글 프리미엄 어뉴이티든, 정기적 저축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뉴이티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출 전까지는 세금 유예를 받지만, 인출 시에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평생보장 받는 인컴 어뉴이티의 계좌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인컴 어뉴이티를 구입하면 2개의 계좌를 갖게 된다. 하나는 투자현금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인컴계좌다.

첫째, 투자현금계좌는 일반적으로 현금계좌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내가 넣은 돈이 이자를 받고 불어나는 계좌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형태에 따라 배리어블, 인덱스트, 픽스드 어뉴이티V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를 받는 옵션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고수익과 고위험이 함께 있는 배리어블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금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인덱스트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매해 확정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픽스드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배리어블은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고위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률을 만들어야 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이 활용하는 인덱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불리는데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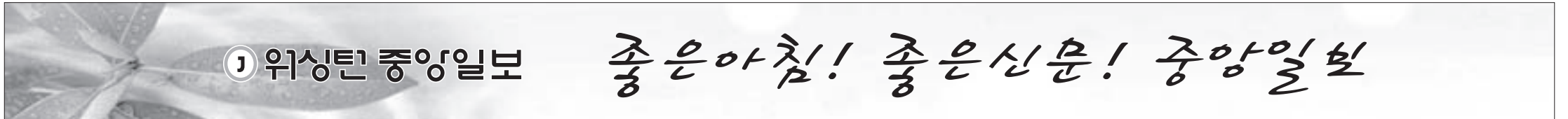
둘째, 인컴계좌는 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인컴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런티하는 계좌다. 일반적으로 현금 계좌보다 더 높은 이자나 보너스

를 지급하여 자라나게 하며, 평생연금의 금액을 계산해 내는 근거가 되는 계좌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뉴이티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지만, 평생인컴이라는 옵션을 선택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고객이 연금을 선택하는 나이에 따라 그 당시 인컴계좌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나이의 인컴 퍼센티지를 대입시켜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사망하기 전까지는 고정된 인컴 수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은퇴연금을 쓰는 시점에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53세의 김부장이 평생인컴 어뉴이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동안 저축해둔 은행 세이빙에 있는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어뉴이티로 옮겼다고 가정하자. 세월이 흘러 김 부장이 63세가 되면 김 부장은 매해 1만3709달러의 인컴을 평생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김 부장이 93세까지 이 연금을 받게 된다면 김 부장은 총 41만 127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집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지려면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풀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원자재와 금융 투기꾼이 만나면



빈곤의 가격
루퍼트 러셀 지음
윤종은 옮김
책세상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선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노점상을 하던 청년이 분신자살을 시도한 일이다. 경찰의 과잉 단속에 대한 항의였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이 사건이 아랍 세계에 ‘재스민 혁명’을 촉발할 줄을 알았다. 청년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민주화 열풍은 순식간에 주변 국가로 퍼져나갔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결국 엄청난 태풍으로 변한다는 ‘나비 효과’를 보여줬다.

이 사건의 충격은 아랍 세계로 제한되지 않았다.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설상가상으로 흉수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국제 곡물값도 뛰어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가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았다.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인 저자는 색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 현대 주요 사건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튀니지 청년의 비극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발흥, 중동·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난민 발생, 유럽 극우정당의 부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을 사례로 든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까지도 포함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이다.

저자는 이런 사건의 배후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통으로 작용했다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지난해 여름 밀을 수확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본다. 그는 “높은 원자재 가격은 경제를 조정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혼돈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격은 폭동과 혁명·전쟁을 일으키고 왕실과 경찰국가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자금을 낸다. 가격은 우리의 빚장을 열어 괴물을 풀어놓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라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설명하겠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실물의 수요·공급과 시장의 가격 변동은 별로 상관없다. 오라클내리락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투기적 성향의 거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는 “금융시장의 혼돈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지, 시장이 어떻게 다시 이를 반영하며 현실에 더 큰 혼돈을 불러오는

지를 추적했다. 이 되먹임 고리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투기라는 장치였다”고 말한다. 요약하면 금융시장 투기꾼들이 원자재 가격을 치솟게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이라크·우크라이나·케냐·베네수엘라 등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일상이 무너진 빈민과 난민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때로는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 묘사는 이 책의 장점이다.

한편으로 책의 중간중간에 묻어 있는 음모론적인 시각은 이 책의 한계다. 사회학 전공자인 저자에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금융시장에 투기적 거래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투기적 거래가 모

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다.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자가 주장하는 가격 결정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과 닮은 면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경제적 하부구조가 법적·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폈다.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는 힘을 잃었지만 아직도 결정론적 세계관의 잔재는 남아 있다. 저자의 주장대로 가격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옛 소련이나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책 실패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제 Price Wars.

주정환 논설위원

시민 자치 실증부터 ‘능력주의’ 비판까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마이클 셸렌 지음
이경식 옮김
와이즈베리

“최고의 정부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다.”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하듯, 언뜻 들으면 프리드먼 같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나 1980년대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이 했을 법한 얘기 같다. 한데 1830년대에는 잭슨주의 민주당원들의 생각이 이랬다. 당시 인프라 건설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휘그당이였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경제 개입이 부자나 권력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금과 사뭇 다른 논쟁 구도는 이뿐만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과 휘그당 모두 자치를 위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의 양성을 경제 분야에서도 중시한 점은 같았다. 자유의 개념과 시민의 자치를 별개로 보고 경제 화두를 지금처럼 ‘성장’과 ‘분배’로만 압축하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 책은 독립 초기 제퍼슨과 해밀턴의 논쟁을 시작으로 미국 역사에서 시기별로 정치 철학과 경제 정책의 중요한 생각들이 어떻게 나온 것이고 그 무게 중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시민과 소비자 등 지금의 논쟁과도 이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모로 흥미롭다. 물론 저자의 관심은 자유주의든 공화주의든 그 변천 자체를 짚는 일이다. 개정판 서문에 밝힌 대로 그는 지금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자치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두 초점으로 바라본다. 저자가 공공선과 공공철학을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 중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강변하는 대신 역사적으로 여러 논쟁과 주장,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통해 생생히 드러낸다.

이 책은 1996년 초판 이후 지난해 새로 나온 개정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초판의 헌법 얘기는 아예 빼 버리고 정치·경제에 집중했다. 책의 마지막은 21세기 얘기로 이어진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를 꼽는 저자는 이 모두를 비판한다. 특히 금융의 비대화에 따른 폐해는 물론 이와 관련해 클린턴과 오바마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비판을 내놓는다. 원제 Democracy's Discontent.

이후남 기자

책꽂이



난파선 한 척 그 섬에(신진순 지음, 처음)=중심에서 가장 먼 고향 나로도로 귀향한 시인은 섬 풍경, 나날의 생활, 이웃들의 삶을 시집으로 엮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착 도드라지는 건 문신 같은 과거의 기억들이다. 기억은 종종 거처의 형태를 띤다. “절망 한 채” “근심 한 채” 같은 표현이 보인다. 그 안에 가라앉아 보면 희망도 보인다.



처음 읽는 현대 철학(안광복 지음, 아크로스)=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 교사이자 20권의 철학 교양서를 낸 저자가 쓴 철학 입문서. 프로이트부터 매클루언까지 사상가 26인을 담았다. 원전을 설명하기보다, 혐오가 넘치는 세상에서 누스바움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 현실과 연결시킨 질문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이경태 지음, 박영사)=스미스와 마르크스는 정치·경제·사회를 아울러 시대적 세계관의 상징적인 인물들. 두 사람이 영국 템즈강변의 카페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설정으로 시작해 자본주의의 장점과 한계, 그 대안으로 제시된 마르크스 사상의 의미와 맹점을 논하면서 시대적 고찰을 보여준다.



왜 내 월급은 항상 부족한 걸까(데이비드 벅마스터 지음, 임경은 옮김, 잇콘)=스타벅스, 나이키 등에서 급여 전문가로 일한 저자는 이른바 ‘공정 급여’가 기업의 경쟁력 역시 높인다고 본다. 급여를 둘러싼 논점을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통해 충실하게 짚고 실용적 정보를 포함해 기업과 개인이 공정 급여의 실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준다.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Diane Mun Lee)
대표 / Principal Broker
워싱턴 한인 부동산 협회 초대 회장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본사 사육/한강식당 옆)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영화관보다 미술관? 데이트 '핫 플레이스' 로 뜨다

인스타 등에 '폼 나는 사진' 올려
싼 입장료에 작품 즐길 수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젊은 커플이 많아서 놀랐어요.”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최근 10년 만에 한국에 정착한 미술가의 말이다. 지난달 프리즈 서울 기간 방한한 해외 인사들도 한국의 미술관·화랑·아트페어는 유럽에 비해 관람객 평균 연령이 훨씬 젊다면서 한결같이 “부럽다”고 말했다.

“요즘엔 대안공간까지 가서 데이트하는 20대 커플이 많더라고요. 작품 감상보다 사진 찍는 데 열중하는 것 같지만요. 하하하.” 어느 큐레이터의 말이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죠. 미술 공간이 언제 이렇게 뜨거웠던가요. 언젠가는 미술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겠지요.”

실험적 공간에도 젊은이 몰려

‘대안공간’은 미술관이나 상업 화랑보다 실험적인 전시를 하는 곳이다. 이렇듯 미술전시장에 커플이 늘어나면서 종전 최고의 데이트 코스였던 영화관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관객 수는 약 9400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줄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미술관데이트’로 해시태그된 포스트는 7만3100여 건에 달한다. ‘영화관데이트’로 해시태그된 9만8100여 건보다 적지만, 미술과 영화의 대중성 차이를 고려하면 미술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요즘 미술관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인 이유다. 코로나19 기간 관객수 급감을 메우기 위해 영화관들은 티켓값을 평균 1만1000원에서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도 보며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

[뉴시스]

1만5000원대로 올랐다. 하지만 그간 관객은 OTT(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영화관 나들이의 ‘가격 대비 만족’에 민감해지고 선택에 신중해졌다.

반면 미술관은 입장료가 저렴한 편이다. 블루버스터 특별기획전은 영화보다 비싼 경우도 있지만, 상설전은 무료거나 몇천원 수준이다. 또한 상업 화랑은 대개 입장료가 없다. 특히 2021년 고(故) 이견희 회장 미술 컬렉션의 국가 기증 이후 국공립 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 전시에 관람객이 몰리고, 이들이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무료로 보았다’고 만족해하면서 많은 사람이 전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둘째,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문화 때문이다. 영화 상영 중엔 사

진을 찍을 수 없고, 대부분 영화 포스터나 홍보 설치물을 배경 사진에 만족해야 했다. 소위 ‘폼 나는’ 사진을 찍기 어렵다. 반면 미술관과 화랑은 사진 촬영에 안성맞춤이다. 미술작품과 전시공간이 멋진 그림을 만드는 데 한몫 거든다. 한마디로 ‘뭔가 있어 보인다.’

전시장이 항상 그랬던 것 아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의 미술관 대부분이 ‘예쁜 배경용’ 사진에 비판적이었다. 사진 촬영도 금지하는 곳도 많았다. 하지만 SNS가 확산하면서 젊은 관객이 밀려들고 미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이제는 미술관들이 앞장서 인스타그램 사진 이벤트까지 열고 있다.

셋째,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영향도 크다. 작품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또 감상자 자신도 속도를 조절

하며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 영화관에서는 진행 속도가 느려도 1.5배속으로 돌리거나 건너뛸 수 없으며, 반대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돌려서 볼 수 없다. 반면에 미술관에서는 한 작품을 5초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한나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최근 미술전시장이 ‘데이트 핫플’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술에 대한 젊은이의 폭발적 관심을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작품이 흑시라도 인스타 사진 배경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지, 나아가 예쁜 작품을 즐기는 대중의 취향에 맞추다가 실험적·전위적 작품이 움츠러드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하지만 관객 없는 미술관이 있을 수 있을까. 전위적인 작품과 대중적인 작품의 적절한

균형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영화관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이제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체험이 아니면 굳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영화관도 그런 수요에 발맞추며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영화계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아이맥스, 4DX(오감 체험), 스크린X(스크린을 3면으로 확장) 등 특수상영관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세 배 가까이, 관람객 수는 2.5배 늘었다.

공연 실태 담은 영화도 인기

또 극장엔 OTT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공간감이 있다.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팬덤과 ‘덕후’들의 모임 장소로도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예컨대 지난 1월 개봉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75만 명 관객을 모았고 3월 개봉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공연 실태 필름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25만 관객을 모은 적이 있다. 이미 멀티플렉스 기업들은 공연 영상 제작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예술영화 전용관도 여기에 해당하는다. 예술적으로 분위기가 있는 공간과 풍부한 토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영화 덕후들의 아지트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소비 지형도가 달라진 가장 큰 동인은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다. 데이트 코스로 미술관이 뜨고 영화관이 지는 것도 그 한 갈래일 뿐이다. 문화는 항상 변하고 섞이는 것. 관계자들의 열정이 모인다면 극장이든 미술관이든 문화계는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슈워제네거 “요즘 애들 약골, 부모 과잉보호 탓”

왕년의 터미네이터, NYT 등 인터뷰 자기계발서 출간 “열정 갖길”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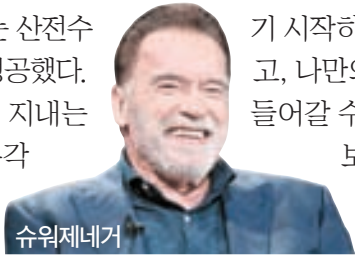
“요즘 어린 세대는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 고통을 모른다.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아이패드도 끄고, 진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할리우드 배우이자 정치가인 아널드 슈워제네거(76)가 지난 6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인생의 사다리를 스스로 만들어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NYT는 인터뷰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아널드가 당신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기 위해 여기 왔다(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슈워제네거가 다시 미 언론의 주목

을 받는 이유는 최근 펴낸 자기계발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라: 인생을 위한 7가지 도구』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이민자인 그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배우로 성공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는 등 정계에서도 나름 두각을 나타냈다. 자수성가하는 과정에서 스



슈워제네거

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발간 삼아 인생 3막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는 NYT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땐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보디빌더였다”며 “그러다 마침 운동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타이밍이 잘 맞았고, 나만의 ‘(출세) 사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보디빌더 시절을 회상하며 “나의 지도를 받으며 나날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이타적인 기쁨을 안겨줬다”고 했다. 자기 개발 및 동기 부여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도 이때 발견했다고 한다.

한편, 공화당원이자 “대선 출마가 꿈”이라고 밝힌 슈워제네거는 NYT 인터뷰에서 “나는 공화당이 내가 있을 곳이라는 편안함을 느낀다”면서도 “물론 공화당이 좀 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정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최고가 SOLD	SOLD	SOLD	SOLD
\$985,000	\$680,000	\$1,350,000	\$400,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숲길·오름 20km 뛰다 걷다... 3시간10분 아름다운 레이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각. 가시리마을 부녀회 풍물패의 신명나는 가락을 뒤로 하고 선수들이 출발점을 뛰쳐나갔다. 함성을 지르며, 머리 위 떠있는 드론을 향해 손을 흔들며... 2023 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 20km 레이스가 시작됐다.

트레일러닝(Trail Running)은 마라톤과 등산의 장점을 합친 신개념 달리다. 포장도로만 달리는 마라톤과 달리 산·들·계곡·사막 등 자연 그대로의 길을 달리는 친환경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초반 1.5km 정도 평평한 포장도로를 지나고 흙길이 시작됐다. 돌멩이를 밟고 말뚱을 피하며 달렸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병목 구간이 나타났다. 산길은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멈춰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올림픽대로 차량 정체구간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호흡 조절이 쉽지 않았다.

병목 구간을 지나자 울창한 숲길이 이어졌다. 캄캄한 숲속을 지나고, 작은 터널도 통과하고, 통나무로 빗장을 걸어놓은 문도 타 넘어가야 했다. 군대 시절 산악 구보나 유격 훈련을 하던 생각이 나면서 마치 내가 특수 임무를 띤 레인저스가 된 기분이었다.

문제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된다는 것. 혼자 한강변을 뛰며 연습할 땐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가자'였는데, 기분이 업 되고 일본·중국 아줌마들한테 자꾸 추월을 당하다 보니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마을 부녀회에서 맡아준 국수 '꿀맛'

지난 8월 초 제주에서 세계 4대 사막마라톤을 완주한 안병식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고향 제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6년 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를 창설했다. 50·100km는 한라산을 뛰지만, 초보자를 위한 10·20km는 자신의 고향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의 조랑말체험공원과 오름 두 개를 뛰는 코스라고 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대회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하순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장거리는 쯤병이었고, 군대 시절 이후 5km 이상 뛰어본 적도 없었다. 집 근처 한강변을 걷다 뛰다 했다. 처음엔 500m 뛰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났다.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



산·들·계곡 뛰는 신개념 마라톤+등산

한강변·관악산서 6주간 담금질 '걸기보다 조금 빠르게' 산속 달려

파라비오름 정상선잠시 멈춰 '찰각' 기록 잇고 등산객처럼 풍광 만끽

지 갔다 오기도 하고(왕복 9km), 한강대교~여의도~양화대교(왕복 12km)를 찍고 오기도 했다. 속도보다는 쉬지 않고 달리는 데 초점을 뒀다. 뛰다가 힘들면 고개를 숙이고 1m 앞만 보고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뛰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올라온다. 더 뛰다 보면 사라진다. 다 뛰고 나면 기분이 좋다. 자신감도 생긴다.

주말에는 관악산에 올랐다. 서울대공대 앞 등산로 입구에서 관악산 정상에 음료수·빙과 파는 아저씨 좌판까지, 처음에는 다섯 번 쉬고 1시간 30분 걸렸다. 네 번째 오를 때는 한 번만 쉬고 1시간 10분에 주파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줄었다.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20km에 도전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몇 차례 걷는 것 빼고는 계속 뛰었다. 2시간 45분 걸렸다. 20km 커트라인이 4시간이니 망

신은 당하지 않겠다 싶었다.

파라비오름(해발 342m)을 앞두고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졌다. 관악산에서 익숙했던 나무 데크 계단을 씬 없이 올랐다.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위가 달랐다. 보통 땀 때는 허벅지 쪽이 아픈데 지금은 종아리와 발목 근육이 아프다. 안병식씨가 해준 얘기가 생각났다. "트레일러닝과 마라톤은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산을 많이 오르세요."

앞 사람 뒤꿈치만 보며 하염없이 오르다보니 어느새 파라비오름 정상이다. 일망무제로 펼쳐진 제주의 산과 들, 느릿느릿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산들바람 따라 춤추는 역세의 향연...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 카메라로 풍광을 담는다. 심지어 기념사진, 단체사진을 찍는 팀도 있다. 기록도, 순위도 잊은 듯했다. 지금 우리는 선수인가 등산객인가.

정상을 내려와 달리다 보니 '여성 참가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반은 넘지 않았다. 잠깐. 내가 출발할 때 맨 뒷줄에 있었잖아. 레이스 내내 추월만 당했다. 그렇다면 잘 뛰는 남자들은 벌써 앞서 갔고, 맨 뒤에서 여자들하고만 뛰는 것 아닌가... 난 누구? 여긴 어디?

진한 우정 잔치, 내년 2시간대 도전

저 멀리 CP(체크포인트)가 보인다. 참가자들이 잠시 쉬면서 음료수와 간식을 공급받는 곳이다. 이 대회는 일회용품 버리다가 적발되면 페널티를 받는다. 각자 컵을 준비해 음료수를 받아 마신다. 음료수를 따라 주는 자원봉사자에게 물었다.

"여기 몇 킬로 지점이에요?"
"7킬로요."
"예? 아, 네."
아니, 그렇게 달려왔는데 3분의 1밖에 안 왔다고? 다리가 후들거렸다.(나중에 알고 보니 7km 왔다는 게 아니라 7km 남았다는 뜻이었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뛰기가 어렵다.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빨리 걷다가 조금씩 뛰다가 했다. 앞에 절뚝이며 걸어가는 남자가 있다. 괜찮냐고 했더니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고 했다. 천천히 오시라는 말밖에 할 게 없었다.

레이스 후반 최대 고비인 큰사슴이오름(해발 474m)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산악 구간이 끝나고 평지가 나타난다. 이젠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3km는 한강변을 뛰던 느낌



1 2023 트랜스제주 20km 참가자들이 역사가 흐드러지게 핀 파라비오름을 달리고 있다. 2 50·100km 코스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3 20km 완주 기념 돌하르방을 받은 정영재 기자.

정영재 기자, [사진 서귀포시]

로 달렸다. 저 멀리 결승점이 보인다. 200m쯤 남기고 미친 듯이 전력질주를 해 10여명을 제쳤다.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지도 모르지만 왠지 그러고 싶었다. 결승점을 통과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난 해냈다.'

대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기록은 3시간 10분 58초. 순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끝낸 뒤에도 꽤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확실하다.

대회 본부에서 완주 기념 돌하르방을 받았다. 가시리 부녀회에서 따끈한 국수를 맡아 주셨다. 와우, 꿀맛! 화장실에서 땀과 비에 젖은 러닝복을 벗고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셔틀버스에 올랐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오후 4시,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앞에 내리니 새벽 6시에 출발한 50km 출전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열 시간을 달린 선수들이 어찌면 하나같이 생생한 발걸음에 환한 웃음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지...

오늘이 59번째 생일이다. 내년엔 한 갑자 도는 기념으로 50km에 도전해 볼까? 아니다. 일단 20km를 2시간대에 끊는 걸 목표로 다시 시작하자. 하다 보면 50km, 100km 가는 날도 오지 않겠다.

정영재 문화스포츠 에디터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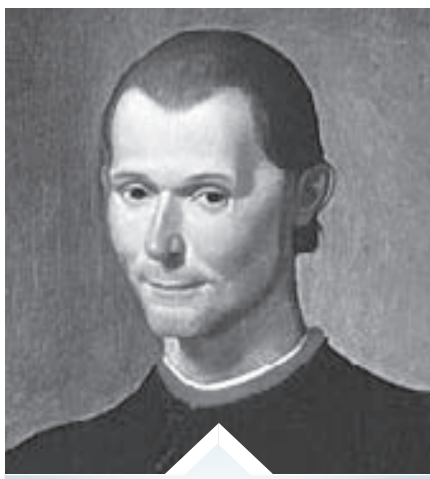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근대 정보철학, 마키아벨리가 씨 뿌리고 흙스가 꽃 피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은 정보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철학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 손자병법과 같은 고전은 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이마누엘 칸트와 같은 지성들이 정보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같은 노력이 오늘날 정보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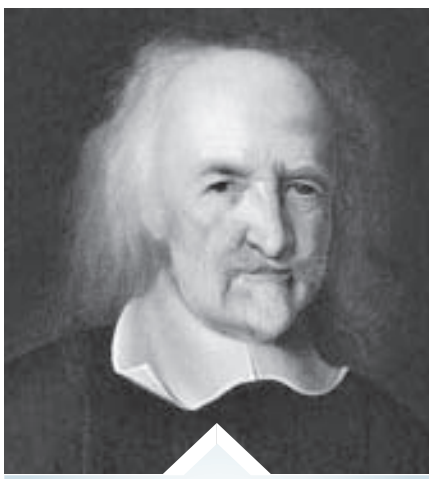
몽테스키의 “대사는 국가의 눈·귀 돼야” 시대를 초월해 철학적 사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성경』은 이스라엘민족의 생존형 정보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12명의 비밀요원을 선발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민수기 제13장).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 여러고성 정복을 위해 정보부터 수집했다(여호수아 제2장).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같은 정보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모사드 정신의 뿌리가 됐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손자병법도 국가지도자의 정보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먼저, 전쟁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므로 국가지도자는 전쟁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부단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 패할 경우 뒤따를 막대한 피해를 직시해 정보예신과 인력을 아끼지 말 것도 강조했다. 손자병법은 훈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스파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5대 원칙도 알려주었다. 현지인을 고정간첩으로 활용하는 향간(鄉間), 적국의 관리를 스파이로 활용하는 내간(內間), 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는 반간(反間), 적에게 역정보를 흘리기 위해 일부러 잡혀 주는 사간(死間), 그리고 적정을 정탐하고 귀환하는 생간(生間) 등 5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중세시대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아랍대상(隊商)과 이태리 상인들에게 무역권을 주고 정보지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포섭한 것은 향간과 반간에 해당한다. 또한 내간과 생간은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의 보편적인 정보수집 방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손자병법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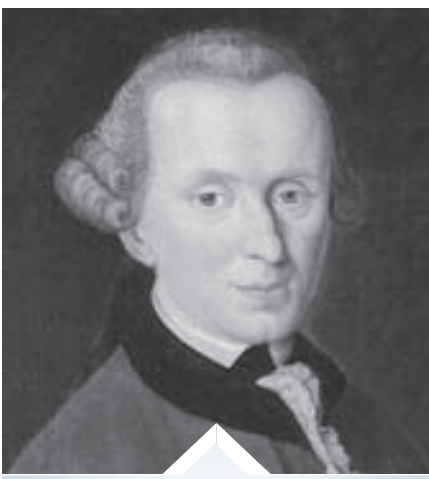
니콜로 마키아벨리

15세기와 16세기 이태리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 서기장을 역임했으며 『군주론』외에도 『로마사 논고』 『전략론』 등 명저를 남겼다.



토마스 홉스

1651년 명저 『리바이어던』을 통해 국가는 강력한 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칸트는 독일 관념 철학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서양 근대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였다.



손무

손자병법의 저자로 알려진 손무(孫武)의 초상화. 손무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군사전략가이자 철학자이다.

은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까지 정보활동의 전형이 되고 있다. 기원전 600년에 이미 정보에 대한 철학적 가르침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참 놀랍다.

유럽 문명의 혁신을 불러온 르네상스는 근대 정보철학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르네상스시대 들어 교회중심의 중세질서가 저물고 새로운 근대국가가 나타나자, 이들간 세력경쟁이 거둬지는 격변의 시대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의중과 정세파악이 중요해졌으며, 자연히 정보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즈음 상주대사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작용했다. 상주대사는 외교관 신분으로 여행이 자유롭고 고위관료와 학자·종교인 등 현지 유력인사와 교류가 가능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가 대사는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정보사무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면서 근대철학이 정보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했다.

이태리 피렌체 공화국의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보철학의 문을 열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의 말처럼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현실 지시의 토대 위에 지극히 목적 지향적이다. 자신의 국가인 피렌체가 공화정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근대를 두지 않아 주변국들로부터 자주 침공당하자, 아무리 좋은 정책과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

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목적이라면 기만·권모술수와 같은 교활함과 악덕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같은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은 정보가 추구하는 철학과 매우 일치한다. 정보의 기본철학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만 낼 수 있다면 도덕·비도덕을 따지지 말고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키아벨리의 경력을 보면 그의 정치철학에 정보철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여느 철학자와 달리 정보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상가였다. 29세에 피렌체의 외교·군사 실무를 담당하는 제2서기국의 서기장에 임명된 그는 외교·군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당시 피렌체의 핵심 안보현안인 교황 및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외교·군사는 물론 정보업무까지도 담당한 국가안보 최고위급 실무자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에는 곧 정보철학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홉스는 마키아벨리의 정보철학을 좀 더 독립적으로 발전시켰다. 근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홉스는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

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정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보활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았다. 철학사 최초로 정보를 독립변수로 인식하면서 정보의 필요성, 중요성, 정당성을 정치철학적으로 풀어냈다.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보철학의 씨를 뿌렸다면, 홉스가 꽃을 피웠다.

국력에 걸맞게 정보철학 재정립 필요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생각이 달랐다. 칸트는 모든 이성적 존재는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공동체 전체도 전쟁이 없는 영구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떤 국가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신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밀 정보활동은 국가 간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록 비밀 정보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공동체 전체의 평화유지를 위해 비밀 정보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영구평화론』과 『도덕의 형이상학』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칸트는 비밀리에 스파이를 잠입시켜 다른 나라를 정탐하는 행위 또는 암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밀활동은 국가간 평화의 전제조건인 신뢰를 깨는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칸트의 생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한 양차 대전 앞에서 국가들은 칸트의 이상적 정보철학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존망의 전쟁 앞에서 정보활동을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칸트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정보철학이 모두 사장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국익경쟁 심화에 따른 과잉 정보활동,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활동, 국민들에게 심한 정서적 비호감을 자아내는 정보활동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빈발하자, 칸트의 정보철학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도 합당’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윤리에 배치되는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칸트적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다. 미국이 적국 지도자에 대한 암살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도 이러한 정보윤리가 반영된 것이다.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은 모든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그 속에서 정보도 오늘과 같은 철학적,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주의 정보철학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칸트적 정보윤리가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보정해 주고 있다. 국가 정보사무의 책무와 비전에 대한 철학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맞게 정보철학의 재정립을 기대해 본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얼굴**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기썸킹 · 손준혁 · 장우혁

대학생 곱흔필군

안타깝게도 곱흔필군은 아직까지 여친이 없다.

난 여자가 얼굴 못생기고 몸매 썩인건 별로 상관 없거든. 그런데...

하지만 그런 곱흔필군의 기대와는 달리...

자꾸 큰바위 얼굴의 여인들과 엮이게 되는데...

곱흔필선배!! 저..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그래.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얼굴이 너무 크다구!!

목직

얼굴이 큰건 못참겠어!! 큰바위 얼굴은 딱 질색이라구!!

꿈동산에 모일 것 같은 그런 얼굴을 싫어하는군.

아~ 나도 고아라처럼 얼굴이 주먹만한 그런 여자랑 사귀고 싶다!!

절대로 그 꿈 버리지 마라.

소개팅을 해도 매번 큰바위 얼굴만 나왔다.

전 시간날 때 마다 오이 마사지 하는게 취미랍니다.

오이를 멸종시킬 규모의 얼굴이잖아!!

왜 자꾸 내 주위에는 큰바위 얼굴을 가진 여자만 모이는걸까? 혹시 저주 같은건가?

어허~ 말이 씨돼. 임마!!

그러던 어느날 간만에 소개팅 건수가 생겼다.

오우!! 지자쓰~ 옴팡지게 예쁘잖아!!

이번엔 정말 끝내준다구!! 일단 사진부터 봐봐!!

끝내 주지!!

그리고 며칠 후... 소개팅 날은 찾아왔다.

아아.. 이럴수가!! 소문 그대로

게다가 네가 들으면 더욱 경악할만한 사실이 따로 있지.

뭔데?!! 빨리 말해!! 임마~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주먹만한 얼굴을 가졌다는군!!

앗싸!! 심봤다!!

얼굴이 정말 주먹만 하구나!! 완전히 핵주먹이야!! 쨌장!!

목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넓직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엘리콧시티
 443-310-9247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아anbbq레스토랑
 파트타임서버 폴타임서버구함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함
 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챠틀리 Cafe Moment에서
 금 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매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an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하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력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로드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력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챠틀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키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챠틀리, 현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텔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챠틀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현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케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안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 -203 -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 풀,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트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풀드 샌드위치 유경력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 조절 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챠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 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챠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룬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챠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샴바버(롤톤)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엘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요일.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엘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 처치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력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챠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케비넷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공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트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력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넷 공장에서 일할 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 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텍)
 20년 경력의 핸드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당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
 com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력자우대
 703-725-1233

매릴랜드에서 입주해서 아이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력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경력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씩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챠틀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분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 -274 -5264

수퍼맥스(스탈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 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플 등교, 학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 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3.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매트로드 바로 앞. 즉시입주!
 ▶703-477-3114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9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o) what's the word?; (그래) 어떻게 됐어?

(Mark is talking to his parents about his latest visit to his doctor...)
(마크가 최근에 받은 의사 진료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한다...)

Mom: So what did the doctor say?
엄마: 그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Dad: Yes so what's the word?
아빠: 맞아 어떻게 됐어?
Mark: He said he was surprised that my leg was healing ahead of schedule.
마크: 다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낫고 있어서 놀랐대요.
Dad: Didn't he say it would be about six weeks before you could play football again?

아빠: 한 6주는 있어야 다시 풋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안 하든?
Mark: Yes but he said I might be able to play sooner.
마크: 예, 한데 그보다 빨리 경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Mom: How much sooner?
엄마: 얼마나 빨리?
Mark: He didn't say but I'm thinking it might be just four or five weeks.

마크: 그 말은 없었는데 4 5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Mom: Don't rush things Mark.
엄마: 마크 서두르지 마라.
Dad: Your mother's right. You want your leg to heal properly or you could make matters worse.
아빠: 엄마 말이 맞다. 다리를 제대로 치료해야지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Mark: That's what he said. I'll take his advice and let it heal the right way.

마크: 의사 선생님 말씀도 그래요. 선생님 충고대로 제대로 아물게 할 거예요.

기억할만한 표현

▶ ahead of schedule: 예정보다 앞서.
"The building is going to be finished ahead of schedule."
(저 건물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될 거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 열쇠

(2)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4)외국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 (6)육지 표면에서 일정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큰 물줄기. 내 (8)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 (9)집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10)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의 열매. 목을 쭈어 먹기도 한다 (12)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14)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음 (17)20m 이상의 높이로 자라는 낙엽활엽수. 마을 어귀에 심어져 정자나무라고도 불린다 (19)흙으로 쌓아올려 만든 담 위에 지붕을 얹은 집 (21)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22)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난 판. 말을 요렇게 조롭게 둘러대다가 결국 거짓말이 ~났다 (24)영화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상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임 (26)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27)민중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마을 (28)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것

●세로 열쇠

(1)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3)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 □패□□ (4)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5)교육 실습생 (7)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르고 좋은 말 (8)십리쯤 떨어진 곳. 낙양성 ~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그 누구냐 (11)성년기에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 (13)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15)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공을 세운 이야기 (16)아들의 아내 (18)여러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면서 사교를 하는 모임 (19)음식이 체하여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 (20)이사한 후에 이웃과 친지를 불러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23)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24)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풍속. 성인도 ~을 따른다고 이렇게 체면만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

스도쿠

8		2	7		6	1		
7				5		8	2	
			9					8
4						9	2	
9		8				3		5
		5	3					4
2					3			
		6	4		9			2
		4	2		7	5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1	5	2	9	7	4	8	3
2	3	8	6	1	4	9	2	5
7	4	9	3	5	8	6	1	2
4	8	2	7	6	9	3	5	1
5	9	3	4	2	1	8	7	6
1	2	6	5	8	3	7	9	4
8	7	4	1	2	6	5	3	9
9	6	7	8	3	5	1	4	2
3	5	1	9	4	2	7	6	8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크랜타 · 워싱턴 DC

L.A

구인
일본식당 직원모집
 사세확장으로 함께 성장하실 분
 *스시 셰프 0명
 *히타찌 셰프 0명
 *웨이터/웨이트리스 0명
 침식제공
 엘라베마 지역
 (251)968-2525 (256)653-1970

매매
뷰티 서플라이 매매
 플로리다 올랜드
 매상 \$1,000,000/년
 렌트 \$5,000
 매매가 \$500,000
 T.407-928-3057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
 연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게 폐업 고민 중 이신분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514.1244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완비
 Income Limit (세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애크랜타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심마니 장석훈의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213.388.1234 |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chunjongsansam.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기력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7 (플러턴)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삼삼음육단** 도인력사단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VC 2000 천연항염, 진통 혈관 탄력
 M3 혈액해독, 숙면 기력회복
 로얄 항바이러스 면역력강화
 MEGA 뼈, 골수 영양 면역력 강화
 Golden Water 심장, 뇌 현전 용해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샌페드로: 213,765,9677
 LA코리아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시운약국: 213,344,9730
 LA 한국마켓 약국: 323,464,3925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LA벌론 캘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현대약국(웨스턴+5가): 213,480,3322
 LA시운마켓 엄마스 약국: 213,739,3030
 올림픽 캘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벨리 소망약국: 818,832,2757
 플러튼 내치양양센터: 714,690,012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하마트내): 714,228,921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약국: 562,402,6972
 웰빙건강 허와이언가든: 562,631,4264
 세리토스 패밀리 약국: 562,402,0500
 부에나팍 플러튼 약국: 714,992,4935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시운헨스: 949,350,5023

패밀리케어: 714,521,3535
 비치약국: 714,739,8811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텍사스: 214,998,8861
 유타: 801,888,677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뉴욕/뉴저지: 201,310,8391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조지아(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플로리다/NC/SC: 770,457,1717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하와이 훔살라: 808,952,9966
 하와이 생악촌: 808,381,1909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한국: 010,4399,6247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본사 대표번호 (213) 435-9600

빠른! 비즈니스 펀딩

비즈니스 오너에게 드리는 특혜

- 24시간 안에 승인
- \$5,000-\$200,000
- 99% 승인
- 저렴한 가격

크레딧 체크 없이 2일 이내 펀딩

지금 수지 와 통화하세요!

www.QMadvance.com
e mail : suzie@QMadvance.com

Quick Money in Advance T : 929-207-6710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⁹⁹**
Lunch Dine-in Only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⁹⁹ → 6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